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권세자 위에 계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주인 되시며,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독립기념일의 의미를 온전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246주년 맞아 경계해야 할 현 미국 진보/보수 문화, 이념 전쟁 소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1776년 7월 4일 대륙회의(지금의 연방의회)에서 채택됐다. 13개 주의 대표 56명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선언문에 서명한 날짜다.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인권보장을 규정한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프랑스의 대혁명과 더불어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꼽히는 게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이다. 독립선언문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 담겨 있는 게 미국의 헌법이다.

우리는 독립전쟁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선 '혁명전쟁'(Revolutionary War)이라고 한다. 독립선언문에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행복의 추구를 막는 독재 정부는 혁명을 통해 전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립선언문은 모두 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전문과 권리(인권)의

선언, (영국 왕에 대한) 기소장, 그리고 독립선언이다. 이중 하이라이트는 권리의 선언.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이른바 '천부 인권'을 담았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독재정권에 대항할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자유는 정부를 비판할 권리와 종교의 선택, 그리고 자유를 지켜줄 정부를 스스로 구성할 권리다. 행복 추구권은 사유재산의 보호와 이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의 '권리장전'은 독립선언문의 이 두 번째 항을 구체적으로 풀이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올해로 246주년을 맞는 독립기념일은 온전한 그 의미가 퇴색된 채로 다가오고 있다. 진보와 보수로 양극화된 이념에 따라 독립기념일이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권 보장' 미국 대법원 판결 49년 만에 뒤집혀

연방대법원 낙태권 폐기에 따른 파장과 향후 피임, 동성결혼 판례 번복될 수 있다 예상

미연방 대법원이 50여 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미국 여성 수백만 명이 낙태(임신중단)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24일,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개별 주에서 임신중단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50개 주 중 절반에서는 임신중단 관련 새로운 규제나 금지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3개 주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임신중단을 자동으로 불법화하는 방아쇠 법(trigger law)들을 통과시켰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마자, 일부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AP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이전처럼 임신 중절 수술했다가는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판결이 나온 직후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아칸소, 켄터키,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등에서는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신속 중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례를 폐기하기로 하면서 주(州) 경계는 물론 국경까지 넘는 원정 낙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를 돕는 멕시코 시민단체 '네세시토 아브르타르'('나는 낙태가 필요하다'라는 뜻의 스페인어)에는 미국 여성들의 소셜미디어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비극적 오류"라고 말하면서 각 주에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푸른초장 이종원 목사



인터뷰 에이든 김수진 부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776년 미합중국의 독립선언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서 다채로운 행보가 관측된다.

일단 보수진영은 독립 정신을 거론할 때 역사의 주체로서 백인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대선 결과에 항의해 올해 1월 6일 의회 폭동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의회 난입 현장에서 1776년 독립 당시 미국기를 휘둘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문기구 '1776 위원회'를 통해 진보 진영을 독립 정신을 해치는 원흉으로 묘사하고 '애국가 교육'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수 활동가들은 일선 학교의 '비판적 인종 이론'(CRT) 교육을 공격하는 데 1776년 정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CRT는 미국 법 제도가 선천적으로 인종차별적이라는 흑백 불평등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발생하고 굳어진다라는 가설이다.



보수진영의 이런 행보는 미국 건국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을 배척한다는 이유로 역사학계에서 비판받고 있다. 다른 지역, 인종 집단들도 각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내세워 역사를 맞춤형으로 해석하는 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흑인들은 기존에 부각됐던 건국의 아버지들을 배척하고 인종차별 저항을 강조해 새로운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의 시원을 1776년이 아닌 아프리카 노예가 처음 도착한 1619년으로 보고 그 역사와 노예제의 유산을 탐구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북부 지역은 독립 정신을 지닌 혈통으로 자부심을 강조한다.

전쟁 뒤에 그 지역에 들어온 아일랜드 이민자들도 독립선언의 정신적 계승자를 자처

하며 미국인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가 거두절미 기술이라기보다 전후 맥락 이해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독립사 전문가인 마이클 해트는 "혁명에 하나의 기억만 존재할 수는 없다"며 "기억 방법도 항상 현재 환경에 따라 형성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가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목회자 집중 성경방 2022
대상: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
기간: 2022년 7월10-8월15일 (주일/월요일에만 강의 있습니다)
시간: 주일(5pm-8:20pm), 월요일(7pm-10:20pm) 방법: zoom
준비물: 성경책, 성경방 워크북(구약/신약)
등록비: \$100 (Venmo ID: LALifePlaceMinistry)
문의: 박재니 전도사 (213-220-6729)
주관: 생터성경사역원 LA지부

“본 성경 강해 설교집을 통하여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저자의 머리말 중에서 -



이용규 목사

2016년 11월 10일, '말씀의 거장' 이용규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1973년, LA 동부장로교회를 개척하여 43년 동안 강단을 지키셨습니다.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
이 가르침은 고인께서 제자이며 후임인 소자에게 가장 많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한 평생 항상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며 아끼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설교에 전념하신 스승이십니다.
- LA 동부장로교회 담임 김정오 목사 -
「제 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머리말 중에서

이용규 목사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1973년도에 LA에서 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간 시무, 2016년 소천)



설교집 웹사이트 www.easternpresbyterian.church

설교집을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미국 내 모든 지역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설교집 신청 LA 동부장로교회
담당: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

LA 동부장로교회
Eastern Presbyterian Church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3-3261

담임 김정오 목사
www.epcla.org

강해 설교집 목록

제 1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제 22권 승리의 신앙생활
제 2권 아가서 강해	제 23권 선한 목자와 양
제 3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 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제 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제 25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제 5권 썩지 않는 면류관	제 26권 빌립보서 강해
제 6권 스가랴서 강해설교	제 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제 7권 위기를 이기는 길	제 28권 시온으로 가는 큰 길
제 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제 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제 9권 뚝기서 강해	제 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제 10권 새 천년에 할 일	제 31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제 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제 32권 간추린 신학
제 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제 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제 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 34권 위대한 사랑
제 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제 35권 대살로니가전후서 강해
제 15권 하늘의 시민권	제 36권 큰 산아 평가가 되라
제 16권 진정된 평화	제 37권 견강한 신앙생활
제 17권 하나님의 약속	제 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제 18권 십자가의 도	제 39권 그리스도의 승리
제 19권 새벽을 깨우라	제 40권 감찰의 영감
제 20권 인간의 복된 사명	제 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제 21권 인생의 바른 길	제 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소책자로 출판하였기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발행인 칼럼

Hamilton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표를 살 때부터 쉽지 않았다. 입장할 때는 더 어려웠다. 이미 꽃값을 다 치렀는데 정작 극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스마트폰에 QR 코드가 있어야 했다. 극장 측에서는 표를 구입한 모든 사람에게 password를 보냈고 그 번호만 입력하면 QR 코드가 떠올라 그것을 보여주고 입장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런 류(類)의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왜 잘 안 되는지 그날도 그런 내가 참으로 안쓰러웠다. 그러기를 10분을 훨씬 넘기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입장 완료. 맨해튼 브로드웨이에서 펼쳐지는 공연(空前)의 히트작 뮤지컬 "Hamilton"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정된 좌석에 앉으면서 password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Password를 모르면 현대 생활은 전혀 할 수 없다. 은행, 집, 여러 기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세계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이다. Password로 접속한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한 세상이다. 영적 password,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속된 하늘 세계는 이 땅의 어떤 세상도 견줄 수 없다는 것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 10달러 지폐에 그려진 초상화를 살린 파워 있는 뮤지컬이 바로 해밀턴이다. 그동안 10달러 지폐에 그려져 있던 미국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의 초상화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다가 뮤지컬 "Hamilton"의 위세 있는 인기에 놀려 그 주인공을 도무지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 건국 시기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은 대부분의 대사가 랩으로 이어졌다. 뮤지컬을 사전에 공부하고 갔기에 그나마 좋거리를 이해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2시간 가까이 바빠 움직이는 무대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뮤지컬은 이민자 해밀턴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의 애국적인 면을 조명하기보다 그의 인간적인 면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권력, 친구 그리고 여인들 속에서 빛어지는 싸움과 갈등은 육신 많은 일반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었다. 그는 49세에 애증(愛憎) 관계에 있었던 친구와의 결투에서 총에 맞아 생을 마감한다. 오늘날의 미국인들은 그런 해밀턴에 환호한다. 역사적(歷史的) 인물 속에서도 오늘을 사는 자기들의 평범한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말에 "어제"는 있다. "오늘"도 있다. 내일(來日)에 해당하는 한글 단어는 없다. 우리 민족이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것 같아 섭섭히 생각하지 말자. 내일의 내일인 "모레"라는 단어가 순수 한글 아니던가. 우리 민족은 "내일"보다 더 먼 "모레"를 말하는 미래 지향적 민족이다. 모레는 미국독립기념일이다. 미국 독립의 날이 1776년 7월 4일이었으니 올해가 246주년 독립 기념일이다. 미국 건국의 유산들이 미국 전역에 남아있다. 그것들을 사장(死藏)시키지 말고 오늘과 미래의 삶을 풍성케 하는 데 다 고집내야 한다. 밝은 면이든 어두운 면이든, 공동체적인든 개인적인든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고 배워 미래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하와이 이주, 또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한인 이민 출발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민 역사도 미국 역사의 애환(愛歡)을 함께 만든 당당한 역사이다. 특별히 한국 이민 교회의 역사는 한국 이민자들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돕고, 그리고 바른길로 인도했던 본질적이며 실용적인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한인 이민 교회를 이끌었던 인물 중에 오늘날까지 환호받는 사람이 있었던가. 미국 독립 기념일을 앞두고 보았던 뮤지컬 "Hamilton"은 "password"를 시작으로 "미래"와 "이민" 그리고 "역사적 교회 인물론"까지 많은 상념(想念)을 자아낸 수작(秀作)이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리더십의 관건!

리더십저널,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서튼 교수의 “썩은 사과 식별과 해결하기” 소개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서튼(Robert Sutton) 교수는 효과적인 팀, 조직을 만드는 데는 긍정성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 내 긍정적인 사람들의 영향보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도 달라진다.



서튼 교수는 썩은 사과를 대하는 첫 단계로 썩은 사과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Pruning the Rotten Apples). 그런데 누가 썩은 사과인지 규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정 상황에서 거슬리는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선불리 조직

가 쉽다. 우리 뇌는 생소한 대상에 대해 비판하며 학습하려 하지만 이미 주어진 조건이라고 인정하고 나면 순응하고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직 만족도와 나이는 대개 비례한다. 그런데 타인을 배려하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빠르게 개입하는 편이 좋다. 아울러 리더 스스로도 어떤 행동이 썩은 사과가 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하고 구성원의 견해를 들어봐야 한다. 긍정성을 더하는

개인 능력은 우수하나 협업하는 장면에서 썩은 사과의 행동을 보이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그 영향력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개인 실적이 우수하다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하거나 비슷한 부류끼리 작업팀을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처음엔 갈등이 심할 수 있으나 성향이 유사해 각자 기대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고, 따라서 그동안의 합의된 규칙으로 협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3. 일관되게 돕는 행동이 건강한 사과 상자를 만든다

구성원의 일관된 도움 행동은 전염성이 있다. 한결같이 나누는 사람이 조직 내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나 스스로에 대한 느낌이 나빠지는가?’

내 썩은 사과라고 규정해서 안 된다. 조직에서 나이든 세대의 눈으로 본 젊은 세대의 이기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썩은 사과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서튼 교수는 2가지의 질문으로 썩은 사과를 찾으라고 조언한다. 첫 번째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나 스스로에 대한 느낌이 나빠지는가?’(수치심, 무시, 에너지를 뺏기는 느낌)이다. 다음은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가?’이다. 두 질문 모두에 ‘그렇다’고 한다면 썩은 사과로 의심해도 좋다.

특정 상황에서 불성실하거나 우호적이지 못한 태도는 다른 상황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이기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사실 조직 내 동기요인이 기성세대와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젊을수록 조직 내 기존 제도나 관행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

고 폄하하며 함부로 대하는 무례한 행동은 성격적 특성으로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이런 사람들이 조직 내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을 구체화하면 ‘타인의 생각을 경시하기’ ‘누군가의 말에 대꾸하지 않기’ ‘모욕하기’ ‘감정을 상하게 하기’ ‘무능하게 느끼게 만들기’ ‘뒤에서 험담하기’ 등으로 나타난다.

썩은 사과 해결하기

1. 썩은 사과의 강한 전염성을 기억하라

썩은 사과 행동의 전염성은 좋은 사과 행동보다 영향력이 훨씬 강하다. 해당 구성원을 대하며 좋은 면도 있으니 넘어가자고 썩은 사과를 빠르게 제거하는 행동이 더욱 바람직하다. 썩은 사과 행동이 보인다면

것보다 부정성을 경계하는 것의 효과성은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이다. 집에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지 생각하면서 선물을 사주거나 놀이 공원에 함께 가는 것도 좋은 부모의 행동이지만 아이가 흡연을 싫어한다면 담배를 끊는 것이 아이와 더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썩은 사과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도 흔하다. 이럴 때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잠시 자리를 떠나 맑은 공기에 달콤한 주스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다.

2. 썩은 사과를 판단할 때 영향력을 고려하라

도 모르게 더 많이 나누는 행동을 보인다. 과거 저질렀던 썩은 사과의 행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낙인은 아니다. 투명한 컵에 맑은 물을 붓고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물은 금세 탁해진다. 이 물을 다시 맑게 하려면 그 위에 계속 맑은 물을 부어야 한다.

일관된 도움 행동은 자신이 과거 저질렀던 썩은 사과 행동을 치유할 뿐 아니라 사과 상자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조직 내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역량과 성품을 인정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리더의 일관된 도움 행동은 조직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좋은 사과 행동을 조직 내 규범으로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다.

정기휴간 안내

다음주 신문은 독립기념일 휴일로 인해 휴간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새한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필라델피아 근교에 소재한 새한장로교회는 1981년에 설립된 KAPC 소속 교회이며 담임목사님이 34년 시무하시고 은퇴하시게 되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1. 지원 요건

- ① 장로교 정규 신학교(M. Div. 이상)를 졸업하신 분
- ②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부목사 포함)
- ③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 ④ 이중 언어(한국어/영어)가 가능하신 분

2. 지원 서류

- ① 이력서 ② 자기 소개서 (Letter size 3page 이상)
- ③ 최근 설교 2편(CD, SanDisk or YouTube Link)

3. 서류 제출-이메일로만 받습니다.

kohsehan@gmail.com

4. 서류 제출 마감: 2022년 7월 30일

서류 접수 확인은 이메일로 답해 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Tel 215-402-9922 www.sehanpa.org
Se Han Presbyterian Church 6 Summit Valley Lane Orelan, PA 19075

워싱턴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한인연합장로교회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DC근교 베데스다 메릴랜드에 위치했으며, 1969년 창립된 PC(USA)교단 소속으로 자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약 170명의 교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임목사의 타지역 이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이끌어갈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자격조건

- PC(USA) 미국장로교 소속이거나 가입의사가 있는 분
- 정규신학대학원 M.Div.이상 학위를 받으신분
- 목회 10년 이상 경력있으신 분
-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또는 PCUSA PIF(Personal Information Form)양식을 PCUSA website (https://oga.pcusa.org/) 다운 받아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한후 제출
- 최종 학력증명서와 목사안수 증명서
- 추천서 2통(추천자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본인 및 가족소개서(가족사진포함)
- 최근설교동영상 또는 link (30분이내) 제출

제출처

이메일로만 접수, wukpcdc@gmail.com (참조: 교회웹사이트, WWW.WUKPC.ORG)

제출마감

2022년 8월 31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문의: 이메일 (wukpcdc@gmail.com) 혹은
문자로 (301)233-8610 청빙위원장에게 연락
WUKPC - 7009 WILSON LANE BETHESDA, MD 20817, USA



독립기념일의 의미...

(1면에서 계속)

이런 맥락에서 독립 250주년 기념은 200주년 때와는 현격히 다른 모양새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휴일 개명(Rename Holidays)' 운동 역시 지켜봐야 한다. 동 운동은 휴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름에서 폭력적 색채를 덜어내야 한다는 운동이다.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전개돼온 운동이지만, 최근 갑자기 뜨거워졌다. 진보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은 '우오크(woke)' 즉 '깨어나라' 정신이 대세이다. 약자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일종의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다. 강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인 휴일을 이름만이라도 약자를 배려하는 식으로 바꿀 것을 우오크 시대 정신은 요구하고 있다.

독립기념일의 배경에는 독립전쟁이라는 영국과의 폭력적 대결이 자리 잡고 있다. 개명론자들은 독립기념일이 결국 후세에 평화를 물려주기 위해 싸운 날이라는 점을 강조해 '피스데이 원(평화의 날 1)'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스데이' 뒤에 '원'

이 붙는 것은 두루뭉술한 의미의 '피스데이'는 웬만한 곳에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다목적 이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국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기독교 국가주의는 미국 역사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미국은 애초부터 명백한 기독교 국가로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거의 (많은 사람이 '거의'라는 이 단어를 빠뜨린다) 인약 관계를 맺은 수준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계속되고 있다. 좌파와 불신자는 계속해서 미국을 세속적이고 상대주의적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가 이들에게 밀려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지도자를 제대로 선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미국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국가주의는 또한, 아주 오랜 상하 관계의 사회 질서를 암묵적으로 때로는 명시적으로 지지한다. 즉, 외국인보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보다는 기독교인이, 타 인종보다는 백인이 상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또 강조한다.

사무엘 페리(Samuel L. Perry)

와 앤드류 화이트헤드(Andrew Whitehead)가 쓴 '미국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미국의 기독교 국가주의(Take America Back for God: Christian Nationalism in United States, 옥스포드, 2020)는, 동 국가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치에 있어서 기독교 국가주의와 종교적 헌신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중요한 부분에서 저자들은 바로 이런 사례를 제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중동에서 온 난민은 테러 위협이 된다.", "미국의 전통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기독교 국가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에 강하게 동의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출석, 기도, 성경 읽기에서 열성을 내는 미국인일수록 이런 문제에 대해 기독교 국가주의자의 주장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페리와 화이트헤드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과 기도에 더 시간을 쏟는 기독교인일수록 기독교 국가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적다고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 국가주의는 높은 도덕 표준을 장려하지 않으며 자기희생, 평화, 자비, 사랑, 정의 등

을 가지 있게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 종교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기독교인일수록 기독교 국가주의자와 달리 이민자를 환대하고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받아들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려는 데에 더 열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약자를 보호하라는 건 성경의 명령이고 성경에는 기독교 국가주의와 완전히 모순되는 말씀으로 가득하다. 종교 활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종, 빈곤, 정의에 대한 믿음은 덜 보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결론으로, 1776년 7월 4일은 첫 총성이 울린 날이다. 미국인들은 이를 '전 세계에 총성이 울려 퍼졌다'(The shot heard round the world)는 말로 표현한다.

산인 롱펠로우의 '폴 리버어의 말달리기'(Paul Revere's Ride)란 시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지구촌에 자유와 해방을 알리는 총성이란 뜻이다. 독립기념일 하면 미국인들은 대부분 이 말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총성이 건국자들이 독립을 위해 울린 총성이 아닌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시럽게만 들리는 그런 슬픈 독립기념일 되고 있다.



시론

6.25를 평화의 날로! (2)



은희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과거가 의미 있는 것은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 나갈 때입니다. 한국전쟁의 희생은 이를 바탕으로 내일을 열어 나갈 때 그 희생이 값진 것입니다. 6.25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없이 오늘 대한민국이, 우리들이 어찌 존재할 수 있던 말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더불어 6.25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한반도 한민족의 발목을 더 이상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6.25를 평화의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드림포럼은 '6.25를 평화의 날로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중의 핵심은 '평화교육'입니다. 한국사회는 본국이든 이민 사회든 아직도 진보와 보수진영이 미움과 증오로 양극화되어있고 적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한지 북한지 분단선 외에 우리 사회 안에는 이렇게 또 다른 분단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보와 보수라는 분단선의 평화도 절대적으로 선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득하겠지만 그래도 교육과 훈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안 하면 더 심화 고착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뤄지리라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남북 교류협력 루트가 막혔습니다. 얼마 전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열차가 재개되었지만, 지금은 이마저 북한에 코로나 확산으로 멈춰섰습니다. 많은 인도적 지원단체들, 거의 모든 남북 교류협력 단체들이 개척휴업이고 가슴앓이가 심하며 정적 혼란에 빠진 채 2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간이아말로 평화에 가장 큰 장애물인 남남 갈등을 극복하는 '인식의 전환사업'을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서 평화를 교육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평화드림포럼에서는 이러한 취지로 27가지 집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번째는 '평화드림아카데미'입니다. '누구든지 연장 교육 차원의 공개강연입니다. 매해 6.25를 기점으로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12쪽지 정도의 비대면 줌 공개 아카데미를 합니다. 2021년에는 8개대학교 11분의 교수님들이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평화로 통일을 논하는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1월에 모아 평화드림아카데미 1집을 발간했습니다. 올해도 6.25를 기점으로 평화드림아카데미 2번째 세션을 7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는 각각 있는 현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해 일하시는 사역자들의 고뇌 갖든 이야기들을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사역은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의료사역은 평양심장병원 추진단에서, 나눔 사역은 북한민간단체협의회에서, 개발사역은 북한 협동농장사역에서 등등입니다. 강연 후 역시 '평화로 통일을 논하다' 2번째 아카데미 책자가 발간될 것입니다. 2번째는 '교육교재 개발사역'입니다. 평화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인식의 전환 사업을 통하여 평화 일꾼을 양성합니다. 'Peace Ambassador'입니다. 분쟁이 있는 지역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평화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한반도 평화 일꾼들을 마음에 두고 처음으로 대학 청년층을 대상으로 '평화 통일교육교재'를 만들었습니다. 40대 50분의 집필진들과 번역팀들이 8개월가량을 씨름하며 틀을 잡고 총 5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대학, 청년층을 위한 '평화통일교육교재'입니다. 특징 1번째는 교회용과 일반용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각각 학습자용과 지도자용이 있습니다. 2번째는 한반도 주변 5개 국어로 번역했습니다. (9면으로 계속)

로 vs. 웨이드: '낙태권 보장'...

(1면에서 계속)

임신중단 수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미국 내 가임기 여성 3,600만 명이 임신중단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원 밖에는 양측 시위대가 모여들어 경찰이 이들을 때어 놓아야 했다.

한 임신중단 반대 운동가는 법원 판결에 환호하며 BBC에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그는 "단장(임신중단 금지)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생명권을 지키는 것은(임신중단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신중단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번 판결이 "불법적"이며 심지어 "파시즘"의 한 형태라고 비난했다.

사만사 그래픽 BBC 기자는 미국 아칸소주 리틀 록에 있는 임신 중절 병원에서 현지 상황을 전했다. 그는 판결이 전해진 후 환자 구역의 문이 닫혔고,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기 직전에 먼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아칸소주는 방아쇠 법을 도입한 곳 중 하나다. '로 대 웨이드'는 1973년 이뤄

진 기념비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7대 2 의견으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 여성들은 임신 첫 3개월 동안 낙태권을 완전히 보장받았다. 이후 3개월 동안은 제한적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했으며 마지막 3개월 동안은 임신중단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 동안 12개 이상의 주에서 임신중단 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권이 서서히 축소돼왔다.

앞서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 심리를 진행해왔다.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임신중단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사실상 폐기했다.

사무엘 알리토와 클라렌스 토마스, 닐 고저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바렛 등 5명의 대법관은 이번 결정에 확고한 지지를 보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시시피주의 판결을 지지하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는 회의적이라는 내용의 개별 의견을 냈다.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 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다수의

견에 동의하지 않은 세 명의 대법관은 "슬픈 마음으로 법원을 위해,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기본적인 헌법적 보호 수단을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례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극히 드문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가 분열을 야기하는 정치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임신중단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곳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합법 여부가 바뀔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개인이 임신중단이 허용된 주에서 수술받고 오거나 임신중단 약물을 배송받는 것이 합법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면서 임신중단이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임신중단이 합법인 주에서 수술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미시간 등의 여러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 대법원 판결 직후 이를 환영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불의 중 하나를 극복하도록 국가가 이끌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우리가 더 많은 아이와 유모차, 성적표, 소규모 스포츠 경기 등을 볼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 밝혔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오랫동안 비판해 온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이 모든 주에서 법으로 보호될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통제하는 대법원"이 당의 "어둠과 극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 여성은 어머니 세대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며 "이 잔인한 판결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법원이 오래전 판례를 뒤집음으로써 다른 권리를 보장한 판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는 "앞으로 사건을 다룰 때 그리스월드, 로린스, 오버게펠 등 대법원 실질적 적법절차를 거친 모든 판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언급된 대법원 판례들은 각각 피임, 동성 성관계, 동성혼을 인정했다.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라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사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북음사 562-865-4949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추천 도서

하나님을 말하다
팀 켈러
두란노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자

먹다 듣다 견다
이영령
두란노

내 마음도 설 곳이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왜 괜찮은 해피엔딩이지선
이지선
문학동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연약한 사람들끼리

몇 년 전 교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팀 피터스 목사님의 '목회자들이 너무 빨리 목회를 그만두는 진짜 이유 10가지'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1,7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낙담, 실패, 외로움, 도덕적 실패, 재정적 압박, 화(분노), 탈진, 육체적 건강, 결혼-

가정문제, 너무 바쁨 등의 이유로 사역을 조기 종료한다고 합니다. 최근 제 주위에도 열심히 목회하다가 심신이 지친 분, 갑자기 찾아온 공황장애로 낙담과 좌절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 이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무례한 일들로 상처 입은

분, 그 외에도 건강 문제, 낙심, 외로움으로 탈진하여 더 이상 목회하기 어렵다는 목사님들이 늘어납니다. 사임을 하려고 해도 교회 리더들이 건강검진과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안식월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회를 내려놓고 멀리 떠나서 평신도로 살고 싶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가 어렵지만, 대형교회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민 목회가 어렵습니다. 저는 20대에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청소년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담임 목회 등등 거의 40년을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목회가 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 초기에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이민 생활을

도왔습니다. 공항 마중, 운전 면허증, 자동차 구매, 구직, 자녀학교 등록, 통역, 심지어 스쿨버스 놓친 아이들 라이드까지...목회자들은 영적인 일 외에도 성도들의 미국 정착을 돕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민 교회 목회자들은 어쩌면 이민 초기보다 더 큰 산과 더 깊은 강을 건너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민자 감소, 경제와 사회 문제로 인한 재정 감소,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언어와 문화장벽,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단절, 목회자의 자질 문제, 성도들의 교회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끝없는 교회 분쟁 등등...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역자에 대한 비판과 정죄, 책임만 있고 책임을 감당할 권한이 없는 교회 문화, 나

홀로'라는 끝없는 외로운, 자신만의 모난 성품과 부족한 영성 때문에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자책 등은 목회자가 "이대로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이처럼 목회자 자신의 연약한 영성과 미성숙한 인격, 그리고 지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목회 환경과 목회자들에 대한 격려의 결여가 계속되면, 마침내 더 이상 목회를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물론 목회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다 힘듭니다. 물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순례자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결혼생활, 자녀 양육,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등등 힘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하여서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끼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야 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좌절하고, 고난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형제자매끼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탈진해서 목회를 그만두려는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 끝까지 부르심을 감당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목회자님,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푸/른/초/장

이종원 목사
(새사람교회)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삽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번 선택을 잘못하여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므로 범사에 복된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1. 본문의 내용

1) 본문의 앞 장인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고 감사함으로 벨엘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후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 왕이 사라를 보고 반하여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를 되찾게 됩니다.

2) 본문인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벨엘에서 다시 두 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물과 목초지를 인하여 다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롯에게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도록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니 물과 목초지가 넉넉하고 에덴동산같이 아름다운 요단들을 선택하고 그곳을 향해 가다가 소돔에 정착하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돔과 같이 거주해서는 안 될 악한 곳이 있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 허전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그 보이는 땅을 나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살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해브론에 가서 다시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정성스럽게 단을 쌓았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

다. 감사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2)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투는 것 같이 우리도 다투는 때가 있습니다(6-8절). 부자지간처럼 가까웠던 이들의 사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서로 먹고살기 힘들 때는 오히려 서로 돕고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넉넉해지면 서로 질투도 하고 남보다 더 낫게 보이려 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약1:15) 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습니까? 손을 움켜쥐지 마시고 손을 펴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갚아 복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3) 롯의 선택의 결과(10-13) 롯은 아버지 같은 삼촌이 양보할 때에 사양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롭게 보이는 요단들을 바라보더니 그곳을 선택하고 동으로 향

해 갔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러나 롯은 이 선택으로 인하여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결정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이 선택한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딸과 롯의 근친상간으로 최악 가운데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악한 족속이 되었고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불행한 선택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욕심의 소욕을 좇아 선택한 결과입니다.

4)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14-18)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섭섭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 어디로 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길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하

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그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전부 바라보라 하시고 보이는 가나안 땅 모두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온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개입하십니까? 엄청난 일 아닙니까?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게 하시고 소망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잘한 것

수심판에서 구원받았으며 인류의 종족을 이어가는 큰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2)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생각하든지 지금의 사안이 육신의 원하는 바에서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육신의 원하는 바에 의한 선택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며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앞으로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한 선택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정략결혼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긴 행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경우를 보십시오. 모두 육신의 원하는 바를 따라 한 선택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가면서도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사업업종을 선택할 때 그 외에 어떤 일이든 선택할 때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원리라고 하셨습니다. 3) 기도 응답을 따라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다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밝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을 모두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상관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애를 써서 기도해도 그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이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하고 또 응답받고 싶은 선택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엘리제사장의 축복기도를 믿음으로 선택한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고, 기도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3백 명으로 대적 13만 5천 명과 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당연히 적들은 3백 명 용사들에게 모두 죽고 이스라엘은 대승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오늘 받으신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시고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신 삶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chongwlee2001@yahoo.com

선택

창세기 13:1-18

다. 감사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5:18) 고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2. 본문이 주는 교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먼저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1-5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한 은총으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하자 불순종하여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 거짓말을 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되찾고 많은 재물을 얻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도우시므로 감당할 수 없는 진퇴양난

에 감사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2)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투는 것 같이 우리도 다투는 때가 있습니다(6-8절). 부자지간처럼 가까웠던 이들의 사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서로 먹고살기 힘들 때는 오히려 서로 돕고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넉넉해지면 서로 질투도 하고 남보다 더 낫게 보이려 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약1:15) 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습니까? 손을 움켜쥐지 마시고 손을 펴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갚아 복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3) 롯의 선택의 결과(10-13) 롯은 아버지 같은 삼촌이 양보할 때에 사양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롭게 보이는 요단들을 바라보더니 그곳을 선택하고 동으로 향

해 갔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러나 롯은 이 선택으로 인하여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결정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이 선택한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딸과 롯의 근친상간으로 최악 가운데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악한 족속이 되었고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불행한 선택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욕심의 소욕을 좇아 선택한 결과입니다.

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러 거하게 되고 다시 거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3. 결어

1)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금하는 일이면 하지 마시고, 말씀이 허라고 한 일은 우리가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당장에는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나중에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방주를 짓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인내한 결과 흥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킴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낙태 천국”을 만들려는 California에서 역사적 획을 그은 “생명 존엄 대행진 2022” 성공리에 마쳤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생명을 보호하고자 모인 한인 단체 교회들!!

지난 6월 22일 수요일 CA 새크라멘토 주청사 앞 광장에서는 ‘태아’를 포함한 ‘생명’의 존엄성을 외치는 Pro-Lifer들의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Pro-life 단체들과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들까지 뜻을 합한 이 행사는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통해 무분별하고 잔혹한 낙태로 태아를 살해하는 일의 종단을 촉구하고 49년 전, 미연방 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Tvnext(다음 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단체는 이번 “생명 존엄 대행진 2022” 행사를 주도한 단체 중 하나로, 이번 행사에 참석해주신 한인단체 대표자님들과 목회자, 리더십 분들의(청교도기도운동, 북가주 사모회, 산호



Choose Life, Choose Love & Hope 배너를 들고 생명 존엄 대행진에 참가한 한인들

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Roe v Wade를 무효화하라! 태아도 인간이다!! 를 외치며 거리를 돌았습니다.

예상대로 방해하려 등장한 Pro-Choice, Women’s Choice 무리들

한편, 태아 생명 보호보다는 여성들의 권리를 우선시하여 어떤 낙태든 상관없이 장려하는 반대쪽의 매우 시끄럽고 저질스러운 시위와 방해가 있었지만 이미 저희 주최 측의 보안 준비와 적절

행진 (CA March for Life 2022)는 이번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도와 용기로 실행된 행사입니다.

1. 49년 전 미국에서 최초로 통과된 낙태법 Roe v Wade로 인해 낙태가 가장 많았던 2015년도 리포트들을 보면 9천만 이상의 무고한 태아들의 생명이 “불편하다, 귀찮다, 지금은 안된다” 등등의 진짜 이유들이 “여성의 선택, 여성의 권리”라는 세련된 사회 명목으로 둔갑하여 잔인하고 잔혹하

것이 허용되고, 경찰 조사를 못하게 하는 발의안이 아직도 계속 민주당 의원들의 100% 찬성표를 받으며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고 이제는 상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매우 간절한 행사였다.

캘리포니아 생명 존엄 대행진 바로 다음날,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도해오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판결이 나오다!! Roe v Wade Overturned!!!

캘리포니아 주청사 앞에서 수천 명의 남녀노소들이 모여 기도로 시작한 “생명보호 대행진”이 끝나고 바로 그다음 날, 미 연방대법원에서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49년간 기도하며 “생명의 존엄” 운동을 한 미국 단체들과 교회들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기적적으로 뒤집힌 Roe v Wade (미국 최초 낙태 법안)의 의미!!

세 HMC, 마라나타 교회)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였기에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진행까지 도와주신 대표, 목회자님들께 더 큰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적극적 참여와 리더십 발휘까지!!!

특히 “생명 보호”를 외친 이 행사는 Students for Life 같은 고등학교 및 대학생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적극적인 참여가 참으로 돋보인 희망적인 행사였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사회 정의

한 대처로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늘 격한 싸움을 벌여왔기에 이번 행사 때 특별히 새크라멘토 경찰들을 고용하고, 미리부터 반대파들이 우리 행사 모임 안까지 침입하지 못하도록 안전거리를 두도록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비록 평상시 때보다 훨씬 많은 경비를 들였지만, 더 이상 조직 폭력배 같은 반대편들의 폭력으로 다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 것이 성공적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생명 존엄 대

계 죽어감.

2. 미 전역에 1%도 안 되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 (AGI & CDC’s years of reports) 마치 낙태해야 하는 이유의 전부인 것처럼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들의 전략은, 우리 자녀들에게 공립학교를 통해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을 가르치고, 어린 여성의 몸에도 해로운 낙태를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아무렇지 않고 쉬운 것 - no big deal, simple and easy process”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이 돈이 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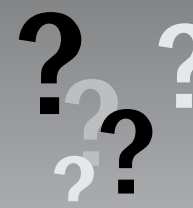
3. 캘리포니아는 AB2223 (태어난 갓난아기를 죽이는

저희 Tvnext (다음 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단체도 지난 10여 년간 “생명존중” 운동을 해오며 이번의 대법원 판결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폭동과 협박, 심지어는 브렛 커버 너 판사를 암살하려는 캘리포니아 남성까지...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판결을 내리준 6명의 판사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Roe v Wade와 현 상황,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tvnext.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요한 계시록의 144,000을 환난 시대의 하나님의 인침받고 구원받은 유대인의 첫 열매로 보거나 어떤 목사님은 대 환난 시대에 추수할 추수 사역자로 문자적으로 144,000명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 오렌지 카운티 윤 권사

A: 요한 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천로역정에 나오는 ‘기독교’가 길을 가다가 어떤 방을 보았습니다. 그 방안에는 티끌과 먼지가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이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그런데 쓸수록 더욱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와서 찬물을 끼얹고 쓸었더니 먼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의 피로만 해결됩니다. 이처럼 요한 계시록은 그림과 상징을 통해 각성을 주고 자극하는 것

셀 수 없는 큰 무리...구속받은 백성의 총수

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상징들은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144,000을 신천지의 구원받은 자나 신천지 지도자의 수라고 말하면서 신천지 성도가 144,000의 수가 차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이만희 교주처럼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17만 명의 신도로 성장했으나 그들이 주장하는 신천지는 아직 임하지 않았으며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 현재 나이 거의 90세로 늙어 몸이 점점 약하여 자주 몰래 병원 신세를 진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계시록의 144,000은 12지파 이름이 나와서 유대인의 구원받은 총수라고 해석하는 목사도 있으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총수로 볼 수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 14장에는 계시록 7장에 이어 다시 144,000이란 수가 나오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분 없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4,000이라고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해석은 12 X 12 X 1,000 인데 12는 구약 이사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으로 구약의 택한 백성의 대표를 말하고 다음의 12는 신약의 택한 백성의 대표 수입니다. 그리고 1,000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44,000은 문자적으로 풀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택한 백성의 총수 즉 신구약의 구속받은 백성의 총수를 말합니다. 이 144,000이 요한계시록 7:9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인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44,000은 구속받은 백성의 총수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어떤 목사는 대환난기에 유대인의 복음 전도자의 수를 해석하나 지나친 해석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예 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461-28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 예배: 오후 2시 수요일 예배: 오후 8시 Tel: (718) 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www.cpcchry.org, Tel: (516) 387-9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주천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 예배: 오전 11:00 다리족들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 Tel: (646) 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오전 11:00 영예예배: 오전 10:00 수요일 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6:0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 229-286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50 청년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목요일 예배: 오후 8:30 토요일 예배: 오후 7:30 Tel: (347) 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 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89-1458, http://onnuri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pcqo.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 114-631-1788, AV, CARABOR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 Tel & Fax: (562) 556-7626,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N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일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808) 685-1859 1130 N. Limite Hwy C-100 Honolulu HI 96817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89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영어) 주일 3부 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 4부 예배: 오후 7:00 수요일 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 947-5252, www.hawaichurch.org 2122 Melcal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현지인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3:00 주일 3부 예배: 오후 5:00 Tel: (52) 3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헌금이 신앙고백이 될 때

한국을 여행하며 강원도에 잠시 묵을 때 산행을 하기로 하고 오대산을 향하여 갔습니다. 차로 최대한 올라갈 수 있

는 곳에 차를 대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주종인데도 불구하고 무척 많은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절 인심이 좋다는 기억이 났고 마침 시장 하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해서 절 밥을 얻어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절에 들어가 식사 한 끼 얻어먹고 가는 것이 꺼림칙하다는 아내의 말도 무시한 채 제법 사람이 많이 모인 산속의 절가에 가서 기웃거렸습니다. 그런데 공짜는커녕, 식당같이 차려진 곳에서 음식과 음료를 팔고 있었습니다. 절 밥을 얻어먹을 기대를 뒤로하고 목이나 축이려고 근처에 있는 약수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에 가니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페트병에 담아 팔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절에서 갖 써나온 다양한 떡들과 한과류도 한쪽에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안

내면 아무것도 없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받았으며 책에서 읽은 절 인심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는 쫄쫄 굶고 하산한 것이 기억납니다. 마침 방문하던 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절에는 화등이 환하게 이곳저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화등에 달린 각종 소원을 읽어 보는데 스님 한 분이 다가와 하나 구입하려고 묻습니다. 가격을 알아보니 천차만별입니다. 십만 원대부터 백만 원, 천만 원, 억 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백만 원 이상이면 주지스님이 특별 기원을 빌어 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이버 목사들이 성도들의 돈 봉투를 받고 기도해 주는 모습에 기겁하고 있는데 이곳도 엇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근본 죄 성은 다 똑같아집니다.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흥정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성은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헌금의 종류도 많아지고 액수가 큰 헌금을 낸 사람들이 알려지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다는 세상 모습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전에 유럽 교회에 드러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헌금을 가지신 하나님께 앞으로 우리 헌금조차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주권을 올려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그래서 헌금조차도 우리의 예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한 액수에 따라 그 많기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가 판단할 수도 우리의 지적 분량으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것을 쓰는 것조차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 앞으로 우리 헌금조차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주권을 올려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낙태 합법화' 판결 폐기에 우방국들 "큰 후퇴" 비판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자 서방 각국 지도자들이 후진적 행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4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영연방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큰 후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여성의 선택권을 믿어왔고 그러한 시각을 견지해 왔다. 그게 바로 영국이 그런 법을 가진 이유"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6개월 전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지난 24일 공식 폐기했다. 현지 여성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가량인 26개 주에서 낙태가 사실상 금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에 "낙태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썼고,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미국서 전해진 뉴스는 끔찍하다"고 충격을 표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25일 성명을 내고 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신념으로 다른 이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아선 안 된다"며 "여성과 소녀가 수많은 시험대에 직면해 있고, 씨름해야 할 문제가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같은 싸움을 반복하며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전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전 총리는 여성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번 판결에 "마음이 아프다"고 남긴 트윗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이는 여성의 권리와 의료 접근을 모두 축소한 것"이라며 "우려되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엔인구기금(UNFPA)도 성명을 내고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임신부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하게 위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NFPA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낙태 행위의 45%가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 다면서 "낙태에 대한 접근이 더욱 제한될 경우 전세계에서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기규제' 합의에도 시카고서 5개월 여아 등 10명 사망

미국 워싱턴 정부가 수십 년 만에 '총기규제 강화 법안'에 합의한 뒤인 이번 주말 시카고 지역에서 잇단 총기 사고가 발생해 모두 10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생후 5개월 여아도 포함돼 지역 사회는 비판에 잠겼다.



CNN·ABC 방송 등은 25일(현지시간) 오전 6시 25분쯤 시카고 교외 지역인 불링브룩의 자동차용품 업체 웨더테크의 한 창고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부상자 2명 중 1명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다른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 달아났던 용의자를 수색 끝에 체포해 1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용의자는 시카고 편두 지역의 찰스 맥나이트 주니어로 확인됐다. 경찰의 예비 조사 결과 맥나이트는 전날 야간 근무가 끝날 무렵 시계와 지갑을 훔쳐 나오다 마주친 직원들과 벌어진 가운데 권총을 꺼내 쏜 것으로 파악됐다.

웨더테크는 고기능성 자동차 매트와 좌석 밑수납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불링브룩은 시카고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교외 마을이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빌 포스터 연방하원의원은 "오늘 우리 공동체는 또 다른 무분별한 총기 폭력으로 산산조각이 났다"며 "말로는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지금 느끼는 비통함을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인 지난 24일 밤에는 사우스쇼어 지역에서 생후 5개월 여아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45분쯤 사우스쇼어 드라이브 한 도로에서 아기를 태우고 가던 차량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이 다가와 총을 쏘았다고 밝혔다.

영문모를 총격을 맞은 아이는 중태에 빠져 코머 아동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운전을 하고 있던 남성도 눈 주위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어머니는 총격 당시 딸이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전했다.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시카고 시장에 출마한 자말 그린은 이 사건 용의자 체포, 검거에 5000달러의 포상금을 발표했다.

같은 날 사우스사이드 파크웨이 가든의 한 마당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18~20세 남성 3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18세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았고 20세 남성은 왼팔에 총을 맞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양호한 상태로 시카고 대학 의료 센터로 이송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총격 사건은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수십 년 만에 중대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합의된 뒤 발생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해 법제화가 마무리된 새 법은 18~21세 젊은이들이 총기를 구매할 때 신원조회를 더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ABC뉴스는 이 사건들을 포함해 이번 주말 새 발생한 총격사건은 61건에 달하며 1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요충지서 철수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이 벌어지는 동부 돈바스의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현지 지휘관인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이날 TV에 출연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철군하라고 명령

받았다"며 "몇 달간 타격을 받아 산산조각이 난 진지에 단순히 잔류를 목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남게 된다면) 전사자 수만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미 철군해 다른 진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곳에서 교전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하이다이 주지사의 철수 발언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으나 상황이 어려운 점은 시인했다.

올렉산드르 모투자니크 국방부 대변인은 "인력과 장비의 손실에도 러시아군은 포병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이것이 그들이 전술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를 포위하려 하고 있으며,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이 철수하면 러시아는 루한스크주를 사실상 점령해 침공 후 주요 성과를 올리게 된다.

전쟁 전 친러시아 반군 세력은 루한스크주의 절반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루한스크주에서 마지막 남은 리시찬스크에서 러시아군과 격렬하게 교전하고 있다. 대량의 탄약이 소모되고 하루 수백명이 숨지는 소모전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올해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북부 공략에 실패하자 동부, 남부 돈바스(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 지역으로 점령 표적을 바꿔 세베로도네츠크를 비롯한 동부 요충지에 공세를 높여왔다.

세베로도네츠크는 러시아군의 무차별적 폭격과 물량공세식 시가전 때문에 일찌감치 도시 기능을 잃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도시의 모든 기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 주택 90% 이상이 포격을 맞았다"며 "특히 80% 정도는 붕괴 정도가 심해 아예 복구가 불가능 수준"이라고 참상을 알렸다.

러시아는 소도시들을 하나씩 초토화하는 전술을 앞세워 점령지를 늘려가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러시아군은 루한스크주의 95% 정도, 도네츠크주의 절반 정도를 장악해 사실상 돈바스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게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EU후보국 지위 획득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의 강화를 위한 가장 큰 발걸음"이라고 화답했다.



EU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를 결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회원국 27개국 정상들 일일이 열거해 감사를 표했으며, 우크라이나를 도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로베르타 멧솔라 유럽의회 의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연설에서 "새로운 유럽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3개월 전인 3월 24일 유럽 정상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에게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며 "이후 우크라이나와 EU는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길은 전쟁이 끝난 후 국토를 재건할 때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EU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 사회 제도 및 경제 구조 등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 자격

을 얻는데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프간 지진 사망자 1100명 장비 부족에 맨손 구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자국 남동부 파키스탄 접경 지역의 지진 사망자 수를 1100명으로 집계했다. 지진에 쉽게 무너진 흙벽돌 가옥의 취약함과 구조·복구 장비 부족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 정부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아프간 톨로누스에 "파키티카주와 호스트주의 사망자 수가 1100명, 부상자 수가 16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탈레반 재난 당국 관계자는 "부상자 중 1000명 이상은 위중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지진은 지난 22일 파키티카주에서 관측됐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규모를 5.9로 측정했다. 지진 발생 당일만 해도 현장의 혼란으로 보도 매체마다 사망자 추산치가 달랐다. AP통신은 아프가니스탄 국영통신 바크타르를 인용해 155명, AFP통신은 40명으로 파악했다. 사망자 수는 불과 하루 만에 1000명 단위로 늘어났다.

아프간은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해 지진이 빈번한 국가다. 지난 1월에도 서부에서 규모 4.9와 5.6의 지진이 발생해 28명 이상이 숨졌다. 2015년에는 규모 7.5의 강진으로 4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프간의 가옥 상당수는 지진에 쉽게 무너지는 흙벽돌로 지어져 인명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자국 남동부 파키스탄 접경지역의 지진 사망자 수를 1100명으로 집계했다. 지진에 쉽게 무너진 흙벽돌 가옥의 취약함과 구조·복구 장비 부족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 정부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아프간 톨로누스에 "파키티카주와 호스트주의 사망자 수가 1100명, 부상자 수가 16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탈레반 재난 당국 관계자는 "부상자 중 1000명 이상은 위중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지진은 지난 22일 파키티카주에서 관측됐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규모를 5.9로 측정했다. 지진 발생 당일만 해도 현장의 혼란으로 보도 매체마다 사망자 추산치가 달랐다. AP통신은 아프가니스탄 국영통신 바크타르를 인용해 155명, AFP통신은 40명으로 파악했다. 사망자 수는 불과 하루 만에 1000명 단위로 늘어났다.

아프가니스탄 파키티카주 가안에서 23일(현지시간) 주민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맨손으로 치우며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프간은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해 지진이 빈번한 국가다. 지난 1월에도 서부에서 규모 4.9와 5.6의 지진이 발생해 28명 이상이 숨졌다. 2015년에는 규모 7.5의 강진으로 4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프간의 가옥 상당수는 지진에 쉽게 무너지는 흙벽돌로 지어져 인명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

탈레반 군용 헬리콥터가 2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파키티카주 버팔 상공을 이동하며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번 지진은 한밤중에 발생해 잠을 자던 주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지진 피해 지역이 외딴 산악지역이어서 구조와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레반 정부는 헬기와 인력을 파견했지만 구조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원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위중한 부상자도 많지만 잔해에 깔린 실종자를 빠르게 구출하지 못하면 사상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49. 박종수 (1868-1951)

박종수는 1868년 11월 27일에 평안남도 증산군 논저리에서 태어나 평양노기동에서 거주했다. 그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던 김달리 신자였다. 그가 36세가 되던 1904년 9월에 아내 김명근과 세 자녀 용순, 삼자, 보배 그리고 처제 부부와 함께 몽골리아 배편으로 하와이 노동자로 이민 갔다. 1910년에 그는 하와이섬 코나에서 농장 노동자로 활동했다.

그런데 어려운 운영 재정 조달 등으로 1917년쯤에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박종수는 이듬해인 1915년에 하와이섬 파팔로아 교회로 파송받아 1920년까지 파팔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1913년에 설립한 한음학교를 통하여 국어와 애국



정신을 가르쳤다. 1915년에 성인 4명과 어린이 3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어린이 5명이 학습을 받았는데, 1917년에는 청소년 1명이 세례를 받았고, 성인 6명이 학습을 받았으며, 1920년에는 성인 2명이 세례를 받았고, 학습교인 어린이 3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성인 4명이 학습교인이 되었다.

가톨릭 신자였지만 공부한 사람이었던 박종수가 노동하던 농장에서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으므로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연회는 그를 1911년에 오아후섬 하와이와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하면서 이관목 등과 함께 집사 목사 과정을 시작하도록 했다. 그는 신흥균, 임정수, 김유호, 이내수, 임봉안, 이재연, 유동면과 함께 하와이 재류 동포를 위하여 학생 양성소 창건을 추진하면서 1911년 7월에 신한민보에 학생 양성소 창건 발기문을 게재했다.

5년간 섬기던 파팔로아 지역을 떠나 1921년에 박종수는 같은 섬 호놀룰루로 이주하여 1923년까지 2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1922년에는 성인 2명이 세례를 받았고, 어린이 9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학습교인 어린이 42명이 세례를 받았고, 성인 2명이 학습교인이 되었다. 1923년에 오아후섬 와이쿠아 한인감리교회로 파송받았는데 그해 9월에 본 교회를 사면하였다. 그런데 1925년에 박종수는 교역자로 파송을 받지 못했다. 그는 와이쿠아 교회에 출석했다. 서재필 박사를 하와이로 초대할 때 와이쿠아 교회 여러 명이 기부를 하였는데 그해 7월호의 한인교

회보에 실린 기부 명단에 박종수도 있었다. 그 명단에 실린 본 교회 교인은 정미가, 이성삼, 양성학, 박경일, 조한문, 김경건, 맹정호, 김신실, 황사용, 이승렬, 박종현, 이동빈, 선우혁, 유정준, 박남순, 김상운, 박종현이었다. 와하와와 교회와 한국을 다녀온 박종수를 그 달에 초청하여 환영도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이에 보답이라고 하는 듯 수십 달러에 해당하는 예배당 정원 잔디 깎는 기계를 기부했다. 이듬해 박종수는 황사용이 담임으로 있는 오아후섬 가후구 한인교회 전도사로 파송받아 가후구 교회를 섬겼다. 그해 성탄절 저녁 8시에 하와이 와하와에 거주하는 박종수의 차남 관두와 호랑 문흥석의 자녀 인희와 결혼했다. 그해 학습교인 12과 세례교인 7명이 있었다.

회보에 실린 기부 명단에 박종수도 있었다. 그 명단에 실린 본 교회 교인은 정미가, 이성삼, 양성학, 박경일, 조한문, 김경건, 맹정호, 김신실, 황사용, 이승렬, 박종현, 이동빈, 선우혁, 유정준, 박남순, 김상운, 박종현이었다. 와하와와 교회와 한국을 다녀온 박종수를 그 달에 초청하여 환영도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이에 보답이라고 하는 듯 수십 달러에 해당하는 예배당 정원 잔디 깎는 기계를 기부했다. 이듬해 박종수는 황사용이 담임으로 있는 오아후섬 가후구 한인교회 전도사로 파송받아 가후구 교회를 섬겼다. 그해 성탄절 저녁 8시에 하와이 와하와에 거주하는 박종수의 차남 관두와 호랑 문흥석의 자녀 인희와 결혼했다. 그해 학습교인 12과 세례교인 7명이 있었다.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연회는 1927년 이후 박종수를 파송하지 않았고, 곧바로 그는 호놀룰루로 이동한 것 같다. 조국 독립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1930년 1월에 하와이한인협회를 조직할 때 그는 이정근, 최두옥, 조광원, 이원순, 신국 겸, 전운서, 박상하, 김윤배, 김진호, 조용하, 이상호, 강영호, 정원명, 김이제와 함께 임시위원으로 활동했고, 임시 위원장은 조용하, 임시 재무는 김윤배였다. 이듬해 1931년 8월 29일 저녁 7시 30분에 호랑 교민단 주최로 밀러가 종단관에서 50여 명이 모인

간 심진 후 그해 3월에 나온 한인교회보에 '라이나 교회에 대한 감상'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본 교회 부인들이 열심과 사랑으로 본인을 관대하여 생전에 잇을 수가 없다며 모든 형제자매가 주님 은총 중 건강하고 끝까지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을 담임목사가 파송되지 않아 라이나 농장에서 근무하던 박안드레가 임시 담임목사가 되었다.

1944년 2월호 한인교회보에 박종수의 '의인 읍의 전기를 살펴보자'라는 글을 기고했다. 전 호에 이어서 게재된 글을 아래에 소개한다. "... 읍이 그 세 친구로 더불어 변론하고 엘리후의 책망을 받은 후에... 읍이 자기를 겸손히 하여... 자복하니 여호와께서... 읍에게 복을 다시 주시고... 이에 읍이 면앙이 일만 사천이요, 약대가 육천이요, 소가 일천이요, 암나귀가 일천이 있고, 아들 7형제와 딸 3형제를 낳았으니... 전국 중에 읍의 딸과 같이 아름다운 여자는 볼 수가 없더라. 읍이 저들에게 산업주기로 그 남형들과 같이 손자 4대를 보고 죽으니라. 이 읍의 역사를 보시는 형제자매시여,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고 부족함이 없다 하여 시험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읍과 같이 행복한 생활을 하리다."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정치, 경제, 철학, 과학이 아니고 법률이나 사상이 아니고 오직 성서뿐이다"

박종수는 1912년에도 오아후섬 와하와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받았다. 그는 그해 6월에 신한민보 경비를 위하여 1달러를 보조했다. 런던의 허극이 4달러 63센트를 기부했지만 대부분 센트를 보낸 것으로 보아 큰 기부임은 물론이다. 그는 1914년까지 오아후섬 와하와와 한인감리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1925년에 박종수는 교역자로 파송을 받지 못했다. 그는 와이쿠아 교회에 출석했다. 서재필 박사를 하와이로 초대할 때 와이쿠아 교회 여러 명이 기부를 하였는데 그해 7월호의 한인교

가운데 국지 기념식이 있었다. 단장 손덕인의 사회로 변홍규가 기도하고, 흥한식, 서진수, 마주홍과 함께 박종수도 연설했다. 이후 미감리교회 부인 찬송대의 장가와 이용직의 축사가 있었다.

1938년 5월에 호랑 교회가 운영하는 대동국어학교 방학식이 있었다. 일동의 조선 국가 합창, 209장 찬송, 문도라의 기도, 전미리양의 성경낭독, 이영생의 피아노 독주, 2반 학생의 대강놀이, 1반 학생의 노래, 서호신의 언문의 제정, 3반 학생의 대산놀이, 생도 일동 합창, 권에스터의 국어 독서 낭독, 4반 학생의 격언 암송, 이영생의 공자 역사, 한나오미의 우스운 이야기, 상품 수여식, 진급생 광고, 졸업증서 수여, 기부인 광고, 219장 찬송에 이어 박종수가 축복 기도를 한 후 다과회로 이어졌다. 이날 이성생, 서정호 그리고 차재균이 졸업증서를 받았다.



파팔로아 교회 (1910년)

1914년에 박종수는 같은 섬 가할루 교회로 파송받았다. 본 교회는 최근까지 있다. 그해 6월에 하와이, 오아후, 가할루 지방에 있던 아후마누 농장에서 103명이 입대하여 대조선 국민군단이 설립될 때 박종수가 협력했다. 안원규와 함께 박종수가 리비 회사와 계약한 1,500 에이커의 파인애플 경작 도구를 기부하고, 와하와에서 자작 농사하던 임응천, 한태경, 한지운과 이치영이 기부한 그해 농사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미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군사 활동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와이 군 사령부가 이를 묵인한 가운데 미국 군제를 사용하고 총 대신에 목총을 사용하였으며, 설비는 적었으나 완전한 군대였다. 박종수는 병 학교 주임으로 단장 박용만 바로 아래 계급인 대대장이

그런데 1925년에 박종수는 교역자로 파송을 받지 못했다. 그는 와이쿠아 교회에 출석했다. 서재필 박사를 하와이로 초대할 때 와이쿠아 교회 여러 명이 기부를 하였는데 그해 7월호의 한인교

그해 9월에 강영각이 미주 대륙을 다녀온 후 청년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행하려고 할 때 박종수가 협력했다. 김유택의 주택에서 모여 임시 임원과 이사원을 선정한데 회장에 이용직, 서기에 강영각, 재무에 한길수, 사교원에 김유택을 선정했고, 이사회에 이사라, 김이별, 이동빈, 조광원, 흥한식, 이한식, 정의조와 함께 박종수가 선임받아 그 달 19일에 누아누 청년회관에서 박종수 등 150여 명이 한인소년동맹단을 조직하고, 15세 이상 30세까지는 전회원으로, 40세까지는 찬성회원으로, 그 이상은 찬성원이라 칭하여 조국 정진고취, 친목으로 청년 단합 경영, 사회적 수양을 실현하여 재미 한족의 장래를 목적했다. 1년 예산을 300달러를 지정하고, 그 자리에서 100여 달러를 모금했다. 박종수의 선교사역은 1933년 9월에

호랑 교회는 1940년에 교인수가 300명을 넘어 새로운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교회신축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장에 안원규, 부위원장에 박관두, 재무 부장에 박현, 위원에 한형신, 정위라, 권희경, 임두화, 프라이 감독과 함께 박종수가 선정되었다. 후직 목사였던 박종수는 1943년 9월에 프라이 감독의 부탁을 받고 라이나 교회에 임시 담임목사로 가서 1944년 1월까지 약 4개월

예언, 둘째, 이방인에 관한 예언, 셋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정치, 경제, 철학, 과학이 아니고 법률이나 사상이 아니고 오직 성서뿐이다."라고 권면하였다. 박종수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14일에 향년 73세에 호놀룰루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곳 오아후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3-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trosco@yahoo.com 6652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장영): 오후 1:45 디어베: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por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휴일, 유년, 종교행사*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617)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948
새생명한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세 배 예 배: 오전 6:00(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 749-9829, www.anc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일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820-9049, www.je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지역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어 예 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성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 5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kc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말씀과 땅 (12) - 사래의 기근

가나안 땅에 찾아든 기근은 앞으로 그 땅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약속이 있는 아브람에게 그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여러 민족은 고사하고 정작 자신에게 딸린 식솔의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는 강이 흐르는 땅에서 해결책을 마련해보고자 식솔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바 있다(창 12:10). 이것이 그가 75세에 가나안의 기근을 보고 취한 행동이었다.

사래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다. 앞으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약속이 그에게 있는데 정작 그에게는 아이가 들 어설 기미가 없는 것이다(창 16:1). 그래서 사래는 애를 가질 만한 젊은 몸을 가진 첩을 남편에게 들여 해결책을 마련해보고자 남편을 애굽 사람 하갈에게 들여보냈다:

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근과 함께 여인의 불임은 신의 저주로 간주되었고, 혼인계약서에 이런 사태를 대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명시하곤 했다: 1. 이혼하고 새 아내를 맞는다; 2. 본처와 동등한 후처를 들인다; 3. 첩을 들인다; 4. 양자를 들인



기근의 답은 애굽에 있지 아니하다. 내게도 당연히 없다. 약속을 이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자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창 16:2).

이것이 아브람과 사래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창 16:3), 즉, 사래의 나이 75세에 자신이 출산하지 못함을 보고 취한 행동이었다. “출산하지 못”함(창 16:1), 그것은 사래에게 있어 그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이었다.

구약시대 근동인들은 여자를 가사 경제에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겼다. 결혼과 동시에 여자는 가업의 절반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점차 자녀 - 특히 아들을 - 를 생산함으로써 추가 노동력을 보태기 때문이다. 결국 씨가 없음을 빈곤을 가져오고 폐가를 초래하는 땅의 기근

다. 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사래가 남편을 위해 3번, 즉, 첩을 들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도 대체 왜 아브람이 아닌 사래가 그 일에 주도적인지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 주전 15세기경 메소포타미아의 누지(Nuzi)에서 작성된 한 토판 문서(H67)의 내용이 흥미롭다. 어느 가문에서 양자를 들이며 그에게 아내를 맞게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자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된다:

“셴니마(Shennima)의 아내로 길림니누(Gilimninu)가 주어졌다. 길림니누가 아이를 낳으면 셴니마는 다른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길림니누는 셴니마의 첩으로 툴루(Lullu)의 한 여자를 들여야 한다”(Nuzi 문서 H67).

놀랍게도 아내(길림니누)가 아이를 못 가질 경우 그 아내가 남편(셴니마)을 위해 첩을 들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비록 누지 문서가 아브람 사에 시대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속과 관련된 고대 근동의 전통이 구약시대 안에

치를 끼쳤다면, 사래는 자신이 들인 애굽 여종으로 인해 “멸시”를 당해야 했다(창 16:4). 그 멸시로 인한 “모욕”이 얼마나 컸던지 사래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요구했고(창 16:5), 아브람은 사래에게 “좋은 대로... 행하라”는 답을 준다(창 16:6).

그 결과 사래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다”(창 16:6). 여기서 사래가 내뿜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라. 앞서 언급한 누지 문서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있다:

“길림니누는 첩과 그 자식을 내보지 말아야 한다”(Nuzi 문서 H67).

첩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본처가 첩이나 그 자식을 내보낼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 내용에 비춰 사래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사래가 하갈을 괴롭힐 수

는 있어도 그를 내보낼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근. 그것은 우리의 실존을 흔드는 무서운 위협이다.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들먹이는 수군거림을 동반하기까지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당장 주변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강이 애굽에 있고, 애굽 몸종이 곁에 있는데 어찌 불잡지 않겠는가.

그러나 약속을 이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자. 애굽에 답이 있지 아니하다. 내게도 당연히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볼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자. 그는 룯에게 양보했던 것이다.

spark4@gordonconwell.edu

아브람이 찾은 해결책인 애굽이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수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빵 굽는 사모님

한 달 전 휴가길에 로마에 들렀을 때 이십여 년 전에 교회를 함께 섬기던 목사님 댁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목사님과 나는 같은 신학교를 다녔고 사모님은 내가 섬기던 유아부를 교사로 도와주셨었다. 넉넉지 못한 신학대학원 시절, 함께 가족 여행을 갔던 기억도 있다. 이후 목사님은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갔다. 교사 훈련, 자녀 양육 세미나 등 강사로 가끔 불러 주셔서 먼 거리였지만 샌디에고 교회에 몇 번 갔다. 한 번은 목사님 댁에 초대해서 잤더니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접한다고 집 뒤 뜰에 직접 만든 숯불 구이용 바베큐 그릴에 고기를 구워 주셔서 그 열정에 감탄했다. 사모님은 수많은 성도 식사 대접의 뒤처다끼리를 묵묵히 잘 감당하셨다. 두 분이 열심히 사역했고 사모님은 아기를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잘 운영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두 분은 샌디에고 교회 이십 년의 목회를 마무리하기로 한 이후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이 직접 제자훈련을 통해 세운 리더들에게 생각지 않았던 상처를 받고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로 떠났다. 목사님이 로마 교회로 간지 몇 개월 후에 코비드가 터지는 바람에 많은 교인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삼십 명 조금 안 되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거의 선교사 수준의 목회를 하고 계신다.

고등학교 교련 선생님이 출신인 사모님은 씩씩하기도 하고 수수한 착한 분이시다. 목사님 댁에 도착한 날, 사모님이 만든 빵이라고 주었는데 먹어보니 완전히 제과점 빵 수준이었다. 로마에 가기 전 샌디에고에 있을 때 제빵 기술을 배웠다고 한다.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 사람들을 섬길 일이 있겠지” 하고 배웠는데 로마에 간 후 교제 시간을 위해 매주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다. 내가 예배에 참석할 주일은 목사님이 치료차 한국에 다녀오면서 교인들 준다고 사 온 단팥빵과 아이스 커피를 챙겨서 교회로 향했다. LA에서야 한국식 단팥빵이 귀하지 않지만, 한국 빵집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단팥빵에 환호했다. 한국에 다녀오면서 교인들 빵으로 가방을 가득 채워오는 목사님이 또 계시는 것 같지는 않다. 교인들은 단팥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사랑을 먹은 것이다. 로마의 한인교회 구성원들은 몇 분을 제외하면 유학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그리고 관광 가이드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어떤 분들은 꿈을 안고 유학 왔다가 학업을 포기하고 관광 가이드 일을 하기도 한다. 많은 교인이 지속된 코비드로 생활이 어렵고 지친 상황에서 사모님이 굽는 빵과 목사님의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싶었다.

심방 갈 때 가져간다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파파기를 만들어서 튀기는 사모님을 보며 작년에 앞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쓴 자서전에 남긴 구절이 생각났다. 친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앞으로 힘들어지니 남에게 음식을 싸다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로 인간관계가 정리된다는 내용이다. 먹는 것을 싸다 주는 것으로 관계가 정리된다는 단순하고 유치한 것 같지만 먹을 것을 갖다 준다는 것은 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 친구의 말에 일리가 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웃을 섬기는 것이 참된 형제, 자매의 사랑이리라. 매주마다 다른 빵과 과자를 준비해서 삶에 지친 교인들을 위로하는가. 애쓰는 빵 굽는 사모님을 우리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바라보실 것 같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헌터대학 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jslcusa@ahco.com / www.lsl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남가주든든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회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fe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노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월-일 회 교: 오후 1:20 영어예배 (장소: MDC, 켈링드림센터) 수-목: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949)864-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대동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 기도 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o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권영자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CA 90057</p>
<h4>미주양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전 1:45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ja.org 170 Bir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831</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월-일 회 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9:15, 11:30 Tel: (949)864-4010 / behel@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실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r-Ring Church)</h4>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56 실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말) Clubhouse 3 room 1(주)</p>
<h4>열매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목 기도 회: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4>엘피스사역원</h4> <p>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00~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사 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 www.elpisfamil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0, www.grace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토) 주일학교: 오전 11:00 수 일 회 교: 오전 11:00 새벽 기도 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좋은마을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 일 회 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4), www.cornestonely.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 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본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본당) 새 목 기도 회: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히블소망교회</h4>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아산장이 임어재”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ckc.kim@bible.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ny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hpress@gmail.com ny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hpress@gmail.com ny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악한 시대에 신앙의 승리자

부모를 기쁘시게 한 자녀를 효자로 하고, 스승을 기쁘시게 한 제자를 모범생이라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한 자를 열녀라 하고, 왕을 기쁘시게 한 자를 충신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를 믿음의 승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즐거운 동반자가 되려면, 1) 뜻이 일치해야 하고 2) 도덕적으로 조화가 되어야 하고 3)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야모스 3:3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 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뜻이 맞지 아니하면 동행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성공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을 일으킨 이반 뢰브츠는 광산촌에서 아버지를 도와 어릴 때부터 광부 일을 해오면서 술과 마약과 폭언으로 찌들린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16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주여! 당신의 뜻에 굴복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10년 만에 응답되어 웨일즈엔 이반 뢰브츠를 통해 거대한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고 영국에서 200만이 넘는 회심자가

가 생기고 그 불길이 온 세계로 번져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이반 뢰브츠같은 성도를 찾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대부흥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도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때에 한 프로 골퍼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골퍼가 마친 후 친구들이 대통령과 골퍼하니 얼마나 좋았느냐고 묻자 프로 골퍼는 "오늘 골퍼는 내 생애 최악의 골퍼였다"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골퍼하다가 잘 안 되면 욱도 좀하고 해아스트레스가 풀려서 다음 코스에 잘 되는데, 이번엔 대통령만 나오게 아니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까지 나와서 함께 골프 쳤으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 오늘 죽을 맛이었어..."하며 툴툴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격에 맞아야 즐거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회개함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주님과 동행에서 친밀한 기도, 감격과 사랑의 깊은 기도 생활이 사라지고,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미 주님과 별거 생활에 들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기도, 감격과 사랑이 넘치는 친밀한 기도 생활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뉴욕 동양제일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둘째 날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제가 목이 아프면 마시는 올리브 오일 기름병에서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신 후 뚜껑을 닫아 버렸습니다. 한참 자다가 ALARM 시계 소리에 잠이 깨었지만, 더 자고 싶어서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ALARM을 끈다는 것이 올리브 오일 병을 건드려버렸습니다. 그 올리브 오일 병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쏟아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불을 켜보니 이미 올리브 오일 옆에 있는 천으로 만든 소

파에 큰 얼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부흥회에 강사가 와서 문제를 일으켰구나 싶어 열린 화장실에 가서 수건에 비누를 묻혀 열심히 얼룩진 소파를 닦고 드라이기를 갖고 말리고 나니 더욱 큰 얼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저는 요 16:24이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하리라" 내게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소파의 얼룩을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10분이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 "선생님, 오늘 밖에 나가실 일이 없습니까?"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하고 물었더니 "오늘 그 방에 소파를 바꾸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소파를 바꾸시려면 지금 오세요. 제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와서 노란색 소파를 연두색 예쁜 소파로 바꾸어주었습니다. 소파를 바꾼 후 나가는 직원을 붙들고 "이 현 소파는 어디로 갔습니까?" 했더니 "현 소파는

폐기처분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호텔에 있는 모든 방의 소파를 바꾸니까?"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호텔 방이 1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3개만 바꾸기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제 이 방 소파를 바꾸기로 하셨습니까?"하니 그 직원이 "10분 전에 직원회의를 통해 이 방 소파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 제가 소파의 큰 얼룩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이 시간 후에 그 자리에서 무릎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조차 놓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토록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눈물 흘리며 찬송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추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손잡고 거룩하게 하게 살아가며, 주님과 친밀한 기도 생활에 성공하므로 주님과의 동행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럽게 그 앞에 서 수 있기를 바랍니다. songkpak@hotmail.com



2022 밀알 온라인 사랑의캠프

2022년 밀알 온라인 사랑의 캠프 열어

"장애자녀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기회이고 축복"

'2022년 밀알 온라인 Live 사랑의캠프'가 6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Perseverance(인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사랑의캠프는 타이틀 그대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통해 '실시간 online' 방식으로 진행됐다. 캠프는 가수, 북가주, 밴쿠버를 모두 합해 총 184명(장애인 참가자 56명, 봉사자 59명, 스태프, 사역자 등)이 참여했다. 아직 Covid-19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처럼 모든 참가자와 봉사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다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online 을 통해 실시

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게임을 즐기며 서로 친교를 나누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년자원봉사팀 TRAC 으로부터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등 남가주와 북가주, 밴쿠버 밀알의 모든 사역자와 스태프,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사랑의캠프를 준비해 왔다. 캠프 첫날인 23일에는 사랑의교실 각 브랜치 별로 Drive-thru 를 통해 캠프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물티슈, 캠프 티셔츠, 성찬용품 등 간단한 선물을 전달하고 저녁 6:30 부터 '김형건'

집사의 진행으로 캠프가 시작되어 남가주밀알 부이사장이자 갈보리선교교회 담임목사인 '심상은' 목사가 개회예배를 인도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족식과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장애인 참가자의 발을 닦아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했고, 서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을 통해 장애, 비장애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동등하게 누리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세미나는 목회자이자 사회복지사인 '이계윤' 박사가 '행복한 가정, 어떻게!!'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장애자녀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기회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참석한 학부모님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었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이산형 밴쿠버밀알 단장 인노스 페회예배를 드린 앤드 공영과 함께 캠프참여 소감을 나눴고, 특히 사랑의교실 각 브랜치 별로 공원에서 피크닉을 갖는 등 대면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2022년 밀알 온라인 Live 사랑의캠프의 막을 내렸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바베큐파티 자원봉사가족

위탁아동들과 함께하는 여름 바베큐 파티

위탁가정 어린이들과 가족초청, 즐거운 한때 보내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엄)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여름 바베큐 파티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Live Oak Park(10144 Bogue St, Temple City, CA 91780)에서 열린 행사에는 위탁가정에 머물고 있는 위탁 아이들은 물론

이들을 돌보고 있는 위탁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코리안타운 로터리 클럽에서 기부금을 전달받았고, 식구 홈스타일 코리아안 푸드(Shiku Homestyle Korean food)에서 음식 후원, 풋힐즈 네이버교회(Foothills Neighbor

Church)에서 구디백을 마련하는 등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았다.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엄소장은 "이번 여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우리 위탁아동들을 위해 넘치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2014년부터 LA카운티 내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동지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내 유일한 아시아인 전문 위탁가정 에이전시(Foster Family Agency·FFA)로 활동하고 있다. LA카운티에는 친부모의 학대나 방치, 폭력 등으로 아동보호국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이 약 3만 4000여명이며, 이중 아시아인은 600~800여명, 한국 아이들은 60~100명 정도다.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시론

(3면에서 계속)

한-영어, 한-중국어, 한-러시아어, 한-일본어로 교재를 발간하였습니다. 세계 각국 청년들도 그리고 이민 사회의 한글학교에서도 한글을 배우면서 평화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4분의 번역가들이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3번째는 보수도 진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영두에 두고 내용을 잡았습니다. 긍정적인 호응들이 있습니다. 교회용은 학습자용과 지도자용이 이미 출간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용은 11월에 출간될 것입니다. 일반용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거의 전무한 한반도 주변 5개 국어 평화통일교육 전문교재가 평화와 통일의 생태계에 귀한 자원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화일꾼들, 평화 대사들이 많아져 이 사회 안에 평화를 연습하고 실천하는 무대가 넓어지기를 희망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확신과 고백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야 역사적 현실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적어도 그때를 놓치지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Here & Now) 그 도구가 되어 이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이후 1993년에 독일통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헬무트 콜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1990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까?" 여기에 콜총리가 대답하기를, "나는 역사의 신이 돕는다면 1990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10년후쯤에나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나 빨리 독일 통일이 이뤄지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독일통일

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국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실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서 이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고 대답하며 충고했습니다. 통일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는 통일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만이 최선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평화와 통일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반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4:3. "...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평화드림포럼 웹사이트 참조. www.peacedream.org pastor_eun@gmail.com)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유럽 \$240, 남미 \$240, 아프리카 \$240.

Subscription form fields including name, address, phone, and payment details.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동부교계 기사판

요셉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요셉장학재단(The Joseph Scholarship Foundation)이 목회자 양성을 위한 2022년도 장학생을 선발한다. 올해 처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요셉장학재단은 퀸즈장로교회를 개척해 미주한인 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고 장영춘 목사의 목회와 사역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다. 신청자격은 신학교 재학생 (M.Div, Th.M, D.Min, Ph.D)이며, 신청서류는 신앙고백문, 추천서 2통, 성적증명서, 이력서를 thejosephscholarshipfoundation@gmail.com 로 7월 15일 금요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정기태 목사 917-733-7387

메릴랜드 예수사랑교회 사역자 청빙

메릴랜드 예수사랑교회에서 차세대를 위한 비전을 가진 두 분의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아동부, 중고등부와 대학부)를 청빙한다. 자격조건은 신학 대학/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자, 영어 설교 가능,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본인 소개 및 신앙 고백서를 jobrinchrist@gmail.com로 7월 15일 금요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267-574-3811

뉴저지 올네이션스교회 예배 반주자

뉴저지 올네이션스교회(담임목사:양춘호)에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한다. 뉴저지 올네이션스교회는 뉴저지 중부 New Brunswick에 있으며, Rutgers Univ. Campus 안에 있는 장로교 한인교회이다. 자격조건은 세례를 받은 성도로 전공하셨거나 밴드 반주 경험이 많으신 분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신앙 간증문을 choiss@anmcus.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732-314-8840 (최성석 목사)

퀸즈한인교회 Summer School

2022년 Summer School 퀸즈한인교회에서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5주간 열린다.

▲문의: (718) 672-1150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여름캠프

2022년 여름캠프 (Summer Camp)가 베이사이드장로교회에서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6주간 열린다.

▲문의: (718) 229-0858

아름다운교회 비전장학생(신학석사과정 대상) 선발

아름다운교회(롱아일랜드)에서 제28회 비전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재미 한인으로 2022-2023년 학기에 동부 6개 주(NY, NJ, CT, RI, MA or PA)에 속한 신학교 목회학 과정(M.Div)으로 풀타임(9학점 이상)으로 재학중이거나 진학 예정이며,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청정보 및 온라인 등록은 www.arumdaun-church.org/visionscholarship/ 이며, 2022년 7월 9일 토요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arumdaunvision@gmail.com

스티븐 모리스 장로 간증 집회

한국입양홍보회 MPAK 설립자인 스티븐 모리스 장로의 간증 집회가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한국어), 7월 17일 주일 오후 12:00 (영어)로 필그림선교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김화정 집사 201-232-5081

제25차 PCA-CKC 총회 및 수련회

신임회장 이인승 목사, 부회장 나성균 목사

제49차 PCA(미국 장로교) 총회가 Purified to Proclaim 이란 주제로 지난 6월 20일--24일까지 Birmingham Jefferson Convention Center, AL에서 열렸다. 이 기간 중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협의회(PCA-CKC) 제25차 총회 및 수련회도 Birminham Embassy Suite에서 지난 6월 20일-22일까지 함께 진행됐다.

22일 저녁 7시에 제25차 PCA-CKC 정기총회로 90여명의 목사 장로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신임 회장/이인승 목사(남부노회, 휴스턴 새민음장로교회 담임), 부회장/ 나성균 목사(동남부노회, 샬롯 한인장로교회), 강윤호 장로(동남부노회, 아틀란타 새 교회), 삼일총무/ 박수현 목사(서북노회), 부총무/ 서경재 목사(동남부노회, 열린교회), 서기/윤성은 목사(남부노회), 부서기/남성우 목사(중부노회), 회계/ 임정래 장로(남부노회, 새민음장로교회), 부회계/ 최상열 장로(수도노회, 위싱턴 중앙장로교회), 감사/신태섭 목사(서남 OC), 흥기선 목사(서북), 김광일 목사(동부) 등이 선출됐다. 총회를 마친 후에 임원회로 모여서 제26차 총회를 총괄하여 진행하게 될 실행총무로 이구광 목사(남부노회, 소망장로교회)를 선임했다. PCA-CKC 산하에는 한인노회



제25차 PCA-CKC 단체사진

제90회 뉴욕노회, 1차 임시노회

총회준비위원회 조직 및 준비 건, 교회이전 청원 건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회(KAPC) 뉴욕노회 제90회 뉴욕노회(노회장 이윤석 목사)가 6월 27일(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제1차 임시노회로 열렸다. 본 노회는 김성국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제47회 총회를 뉴욕노회에서 준비해야 함으로 총회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날 조직된 총회준비위원회는 위원장 이윤석 목사, 부위원장 허윤준 목사, 총무 정기태 목사, 서기 임병순 목사이며 회계는 차후에 추가 선출할 예정이다.



제 90회 뉴욕노회 임시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위러브 찬양팀이 오프닝 워십을 인도하고 있다

'위러브(WELOVE)' 예배 및 문화사역 컨퍼런스

"기독교 다음세대, 여전히 큰 희망 있다"

프라이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스테판 청년사역팀(이진성 목사)은 25일(토) '위러브 WELOVE (대표 박은총)를 초청해 예배 및 문화사역 컨퍼런스를 열었다.

위러브는 한국에서 기독교 예배 찬양 및 문화 사역으로 젊은세대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 청소년 찬양 집회를 마쳤으며 미동부 메릴랜드, 버지니아, 필라델피아, 뉴저지와 맨하탄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찬양집회를 열었다.

프라이미스교회 찬양집회는 위러브의 오프닝 워십으로 막을 올렸으며 예배 및 문화 찬양 컨퍼런스 사역에 관한 강의를 주강의와 선택강의로 나누어 주강의는 위러브 박은총 대표와 심형진 목사가 진행 했다

박은총 대표는 "미국 유학당시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서 찬양 집회 영상을 통하여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고, 찬양 영상과 기독교 콘텐츠의 중요성을 느껴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찬양사역을 계획하

총회장인 김성국 목사는 "총회를 섬길 귀한 기회를 얻게 됨으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준비에 협력하게 됨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외 회무처리 안건으로 뉴욕새생명장로교회(허윤준 목사), 새벽별주님교회(정기태

목사), 뉴욕좋은교회(정인수 목사)의 교회이전 청원을 모두 승인했다.

개회예배는 서기 정기태 목사의 인도로 기도 방정훈 목사(부서기), 성경봉독 정인수 목



제1회 환상의 조 탁구대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제1회 탁구대회

"목사와 장로 한팀 되어 목장리그"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주관(회장 황규복장로)으로 6월 25일(토) 오전 11시 뉴욕탁구장에서 제1회 환상의 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준성 목사(뉴욕교협 부회장)의 지도를 시작으로 8개 팀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했다. 1등은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전태호 목사와 신인목 장로팀, 2등은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양용기 전도사와 이주수 장로팀, 3등은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이만호 목사와 이진아 목사팀

이 차지했다.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는 우승자와 참가자들을 위해 트로피와 푸짐한 상품을 준비했다.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회장 황규복 장로는 '환상의 조 탁구대회'의 목적을 "하물없이 운동처럼 가까워지기 쉬운 것이 없기에 목사와 장로가 가까워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목사와 장로가 한팀이 되어 경기하는 목장의 의미로 '목장 리그'라고 표현했다.

(홍현숙 기자)



2022할렐루야대회 1차 준비기도회 단체사진 촬영

뉴욕교협, 할렐루야대회 1차 준비 기도회

7월28일-31일, 강사 임현수, 최혁 목사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은 지난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친구교회(담임 민상석 목사)에서 2022 할렐루야대회 1차 준비기도회와 2차 임실행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장 김희복 목사와 대회 준비위원장 이기은 목사가 발표한 2022 할렐루야대회 계획은 7월 28일 - 31일에 걸쳐 진행되며 대회 강사는 2명으로 임현수 목사(토론토큰빛교회 원로목사)와 최혁 목사(LA주안교회)라고 밝혔다. 두 강사는 2일씩 집회를 인도

하여 임현수 목사가 목요일과 금요일, 최혁 목사가 토요일과 주일 저녁집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대회의 주제는 "북한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이며 임현수 목사가 "북한선교"에 대하여 최혁 목사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된다. 또한 대회 장소는 프라이미스교회(허연행 목사)임을 발표했다. 2022 할렐루야대회의 준비 기도회는 본 대회 전 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중독종합지원센터 이계성 센터장(좌)과 더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목사(우)

더나눔하우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MOU 체결

상호협력하여 중독자와 가족의 회복에 도움 되길

미주한인노숙인 비영리전문기관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는 인천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계성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지난 6월 22일 MOU를 체결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참사랑병원 원장인 이계성 센터장은

"뉴욕에서 노숙인들을 케어하며 10년 넘게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더나눔하우스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며 "중독 없는 건강한 문화형성을 위해 중독문제와 정신건강문제 상담 분야에서의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더나눔하우스 박성원 대표는 "참사랑병원에서 20년간 중독 환자들을 돌보고 계신 이계성 센터장은 요즘 일반 정신과 의사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귀한 분"이라고 소개 했으며 이번 MOU를 통해 중독자와 가족이 회복이 되도록 상담과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여 건강한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상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더나눔하우스)

6.25 한국전쟁 제 72주년 상기에배 및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

“하나님의 강한 용사되어 자유통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총재 김영구 목사) 주최 6.25 한국전쟁 제 72주년 상기에배 및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6월25일(토) 오전 10시30분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해성 목사)에서 열렸다. 김영구 목사(사회로 열린 기념행사는 국민 의례, 수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이어 강순영 목사(청교도운동본부)가 ‘6.25한국전쟁과 미국’, 이병만 회장(미주 한인재단 LA)이 ‘6.25한국전쟁과 이민자세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으며 최화량 목사(이승만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남북



6.25 한국전쟁 제 72주년 상기에배 및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에서 '남북한 자유통일을 위한 결의'라는 주제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 자유통일을 위한 결의'라는 주제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최

학량 목사는 “북한의 공산정권은 무너지고, 북한 전역에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질 것”이라며 “기독교 입국론과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강화로 북측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자”고 촉구했다.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 대표) 인도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는 최수일 목사(국제시국 포럼)가 ‘남북한 자유통일을 위해’, 여호수아 지목사가 ‘잃어버린 북한의 주님의 성소의 회복을 위해’, 이선자 목사(세계기독교어머니기

도회장)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흑암에 묶여있는 북한 2500만 동포들을 위해’, 김학송 선교사(통일장학회)가 ‘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무사귀환을 위해’, 그리고 김영구 목사가 ‘자유통일을 위한 일천만 서명 운동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한편 이날 박세현 목사(세계기도모임 서부지부 사무총장)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피종진 목사가 ‘큰 용사(삿 6:14-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피종진 목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며 “우리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비록 약하고 보잘 것 없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큰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할 때 우리 삶이 잘되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과 승리가 있게 된다.”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 자유통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OC한인회와 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 공동주최한 6.25 한국전쟁 72주년 기념식이 OC한인회관에서 열렸다

OC한인회 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 공동주최 6.25 한국전쟁 제 72주년 기념식

OC한인회 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 공동주최 6.25 한국전쟁 제 72주년 기념식이 6월25일(토) 오후 2시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김현석 육군부호장(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 사회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심상은 목사(OC교회회장)가 기도했으며 권석대 장로(OC한인회)가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6.25 참전용사 감사 선물을 증정했으며 이승해 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 회장, 문정희 LA영사, 영김 연방하원의원,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 프레

드 정 풀러턴 시장, 유수연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장, 제임스 조 테이크 포스 타이거 사단장이 기념사를 전했다. 이어 재향군인회가 제공한 6.25영상을 시청했으며 오미에 대한군여성 부회장이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시 낭송, 소프라노 김민지씨, 아리랑 합창단(단장 김경자, 지휘 노혜숙)이 특송을 불렀다. 이날 기념식은 참석한 모든 이들이 6.25노래를 부른 뒤에 조봉남 OC한인회 이사장의 폐회 선언으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다우니제일교회 창립40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다우니제일교회 창립 40주년 찬양감사예배 “교회는 축복의 젖줄...잘 지켜 나가야”

다우니제일교회(임시당회장 강승배 목사) 창립 40주년 기념예배가 6월26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김인평 원로장로는 “창립부터 성장발전을 지켜보면서 다우니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한다.”며 “비록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나갔다. 황천영 목사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안성복 목사로 이어졌고 앞으로 오실 목사님을 통해 복음전도를 우선으로 하고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기훈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역사동영상 소개, 김인평 장로가 교회연혁 발표 및 기도했다. 이어 황천영 목사(본교회 원로)가 ‘교회-축복의 젖줄(겔 47: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천영 목사는 “교회는 축복의 젖줄이다. 하나님은 교회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 주신다. 그래서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 교회를 잘 지키려면 첫째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교회에 주인노릇하면 안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힘을 다해 지켜야 한다.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야 한다. 교회를 대대로 지키는 축복을 누리야 한다. 둘째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나 성도들이 아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인간의 조건들이 풍성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도도하게 흘러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특별찬양대, 소프라노 어유경 전도사, 베이시 조신호 집사, 그리고 교역자 트리오가 찬양했으며 조셉 형제가 트럼펫연주, 본교회 권사들의 오토하프 연주가 있었다. 그리고 특별찬양대와 조셉이 함께 ‘주 안에 하나 되어’를 부르며 마무리했다. 이날 예배는 황천영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주님의교회 김낙인 목사가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

남가주주님의교회 김낙인 목사 은퇴찬하예배 “감사와 축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남가주주님의교회 김낙인 목사 은퇴찬하예배가 6월26일(주일) 오후 4시에 열렸다. 김낙인 목사는 “오늘 예배는 삶의 한 점들을 짚어가면서 감사와 축하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이며 이는 무한한 영광이고 축복이다”라며 “저의 목회연한이 40년이 되었다. 돌아보면 허겁지겁의 삶이 나 자신의 삶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목회자를 지켜주셨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저의 사역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며 “내 영광과 비전 그리고 실력을 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구어주셨고 그것은 풍성한 은혜였다.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민병하 장로 사회로 열린 은퇴찬하예배는 이상철 장로가 대표기도했으며 광태후 장로가 성경봉독했다. 이어 정용치 목사가 ‘목사, 그는 누구인가’(딤후 2: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목사부부합창단이 찬양했으며 김낙인 목사 40년 사역영상이 소개되었다. 이어 노시성

장로와 수 피치 평신도 리더가 감사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김오성 장로가 김낙인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고, 튀타히 감리사가 격려사를 했으며 김낙인 목사가 최현규 신임 담임 목사에게 교단기와 키체인을 전달했다. 최현규 목사는 “김낙인 목사님의 믿음의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겠다”며 “특별히 지난 40년간 귀한 목회사역의 열매를 보았다. 김낙인 목사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이 땅에 100배 1000배 10000배로 맺어질 수 있게 사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결단찬양을 부른뒤 이처권 목사 축도로 마쳤다. 김낙인 목사는 1980년 토렌스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사역을 시작했으며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로벗슨 한인연합감리교회,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아이에아 한인연합감리교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벨리한인연합감리교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했으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남가주주님의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박준호 기자>

서울대학교 이음음악회

학생들의 해외방문을 위한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박사) 이음음악회가 6월26일(주일) 오후 5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이번 공연은 미주에 계시는 동문들에게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해외방문을 위한 ‘SNU 이음장학금’을 위해 마련되었다”며 “음악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선율로 넘쳐나게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남가주총동창회(회장 노명호)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공동주최로 열린 이음음악회는

‘이음장학금’을 위해 마련

바이올리니스트 박민정(아주사파시픽대학교 교수), 하피스트 윤희진, 첼리스트 김원선 등 남가주에서 활동중인 서울대학교 음대출신 동문들과 피아니스트 홍국희(얼바인 벨리 칼리지), 풀루티스트 최혜성(칼텍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유키 모리(아주사파시픽대학교 교수), 조나단 웨이 등 남가주에서 활동중인 음악가들과 협연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였다. 이어 포르테 디 콰르토 멤버인 테너 김현수와 베이스 손태진이 무대에 올라 격조높은 공연을 선보여 이날 공연장을 찾은 많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생터성경사역원, 목회자 집중 성경방
 생터성경사역원(원장 이애실) LA지부(지부장 김덕수 목사)에서는 2022 목회자 집중 성경방 강의 신청을 받고 있다.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게 되는 목회자 집중 성경방은 오는 7월10일부터 8월15일까지 매주 주일과 월요일에 Zoom으로 진행된다. 준비물은 성경과 성경방 워크북(신약, 구약)이며 회비는 100불이다.
 ▲ 문의: (213)220-6729

제26회 에피포도예술상 시상식
 에피포도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가 주관하는 제26회 에피포도예술상 시상식이 7월 23일(토요일) 오후 5시 로텍스호텔(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열린다. 금년에 출판된 <우리가 있고 지낸 다섯 번째 계절>에는 에피포도예술상 수상작가의 작품과 세계한인기독교인협회(회장 이영선목사)에서 주최한 제 6회, 제 7회 독후감모집전 수상자의 작품도 게재됐다. (시상식 참석 회비 30불)
 ▲ 문의: 714-907-7430

은혜한인교회 한여름 성령집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한여름 성령집회를 ‘더 깊고 깊은 은혜’라는 주제로 14일(목)부터 17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황현택 목사(강북제일교회 담임)
 ▲ 문의: (714)446-6200

오렌지한인교회 ‘같이 걸어가기’ 찬양팀 초청집회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는 요게벳의 노래로 알려진 ‘같이 걸어가기’찬양팀 초청집회를 7월2일(토) 오후 5시에 갖는다.
 ▲ 문의: (714)871-8320



청소년 미래와 가정건강회복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소년 미래와 가정건강회복을 위한 세미나 “사회적 이슈에 관해 부모들과 자녀들의 대화 중요”

청소년 미래와 가정건강회복을 위한 세미나가 6월25일(토)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친교실에서 열렸다. 사람과 사회 창간 1주년 기념으로 한미기독교연합회, NGA 차세대에드포켓츠, 한민족여성 네트워크 미서부 LA지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FBI와 연방마약단속국이 2015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체이싱 더 드래곤’ 관람시간을 가졌으며 FBI 관계자가 나와 마약에 대한 설명을 하여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이어 김영철 소장(정신건강가족미션 대표)가 ‘청소년 정신건강과 부모의 역할’, 전달훈 원장(청소년소아과 전문의)가 ‘청소년 육체적 건강이란?’ 등의 주제로 강연을 했다. 또한 NGA차세대에드포켓츠에서 ‘외모지향적 사회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를 이혁주 학생이 했다. 이어 헬렌 김 대표(차세대에드포켓츠, 한민족네트워크 LA지회장)가 ‘청소년의, 미래 설계는?’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헬렌 김 대표는 “마약관련 자료에 아시아인들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상태”라며 “이는 아시아인들이 마약이슈에

자유로운 것이 아닌 수치문화로 인해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이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한인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임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은 졸업 후 비명문대 출신과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출발점이 다르기에 중요하다. 명문대 입학은 많이 하지만 한인학생들의 졸업률은 입학률보다 부족하다. 이는 학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할 뿐 대학입학 후 학교생활에 대하여는 가르쳐주지 않기에 그 결과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고등학생시절 준비해야 하는 것은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정신무장이며 부모들은 자녀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미래에 닦길 일들을 대비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서울대학교 이음음악회를 마치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위기의 軍 선교, ‘신앙 전력화’로 극복해야”

국군선교연합사역 50주년 ‘희년대회’

국군선교연합사역 50주년 ‘희년대회’가 26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개최됐다. 군선교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 대회는 ‘군선교 50년, 미래 100년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회는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 한국군종목사단, 군선교사협의회, 군선교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김장환 목사(국동방송 이사장)는 설교에서 “지금 군선교 상황이 위기”라고 했다.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과 잔 다르크 등 역사적 인물을 예로 들면서 “군선교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합심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선교연합회 이사장인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는 ‘신앙 전력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등 선진국에서는 군종목사단장이 장군인데 우리나라는 대령”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를 높여 군선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주요 정관계 인사와 한·미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대독을 통해 “이번 행사가 군선교를 발전시키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책 임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군선교연합회가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발전, 신앙전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미연합부사령관인 안병석 대장은 국민일보가 보도한 ‘군부대에서 군종병들이 사라졌다’를 언급하면서 “군선교 현실이 어렵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대회에서는 한국교회 군선교 재도약과 미래 비전을 위한 ‘비전 2030’도 선포됐다. 비전 2030



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표어를 기반으로, 매년 10만(신규 6만, 기세례 4만), 10년간 총 100만명의 기독교 장병을 한국교회에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은 지역교회와 군인교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선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기존 출석교회가 있는 장병은 출석교회로, 출석교회가 없거나 군인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장병은 지역별 거점교회를 선정해 파송할 계획이다. 특히 군인교회에서 전도된 영혼을 세심한 관리와 양육을 통해 군인교회에 정착시키고, 전역 이후엔 일반 지역에 거점화한 결연 교회에 파송하는 시스템이다.

총신대 2028년 목표 총신개혁주의주석총서 집필 착수

“출간 모금액 65% 수준”

총신대(총장 이재서)는 총신 개혁주의주석총서 집필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총신개혁주의주석총서는 총신대가 목회 현장에 필요한 성경 66권 주석 및 기타 개혁주의 설교, 목회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자료들을

집필, 출간하는 주석 시리즈이다. 2028년까지 집필한다는 목표다. 교단 교회의 후원으로 지난해 6월 1차 집필 계약을 하였고 이후 2차, 최근 3차 계약을 해 모두 21권의 집필 계약을 체결했다.

송태근 삼일교회 목사는 “개혁주의주석총서는 개혁주의 신학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 기념비적인 주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총신대 교수진이 주요 집필진이다. 현재까지 15개 교회 후원금 모금에 동참했다. 진행을 총괄하는 김희석 교수는 “전체 출간을 위한 금액 중 약 65% 정도 약정 및 모금이 된 상태”라며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6·25 전쟁으로 얻은 자유와 진리, 소외된 이웃에게 돌려보내야”

한교총 6·25 한국전쟁 72주년 기념 예배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이 전쟁의 의미를 기억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은 6·25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마포구 신촌성결교회(박노훈 목사)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평화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설교를 맡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6·25 한국전쟁은 자유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이를 위해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다”며 “그러나 전쟁 후 발전하고 부흥한 한국교회는 풍요에 빠진 나머지 절망하는 이웃을 잊고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나님으로부터 자유와 진리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손을 내미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24개 교단 사무총장과 총무들은 특별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순직한 영령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뜻을 받들어 나라와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으며 이어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치게 증거돼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기념사에서 한반도 복음 통일을 강조했다.



다. 류 대표회장은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허리가 잘려나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애국심으로 강대국의 탐바구니에서 지금까지 성장했다”며 “우리 모두 불 꺼진 애국심에 다시 불을 붙이자. 특히 그리스도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교총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한교총은 서로 불신만 커지는 남북 관계를 안타까워하며 우리 정부에는 평화로운 협력 방안 마련을, 북한에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탈북민 신대원생 “신앙·열정 남달라”

훗날 북 교회 개척 밑거름

10년 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연광구(42) 전도사는 한국교회에서 사역한 지 5년째를 맞았다. 2020년 부임한 서울 도봉구 도성교회(김혜수 목사)에서 그가 맡은 부서는 소년부다. 탈북민 사역자들이 바로 개척에 뛰어들거나 통일 관련 부서를 주로 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례다.

연 전도사는 23일 “깨끗한 물에 떨어진 색소 한 방울이 그 물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한국교회에 평화통일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심겠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했다. 사역 전에는 교회학교 교사로도 섬겼다. 감리교와 장로교를 섭렵하며 한국교회 시스템을 익히고 선배 목회자들의 신앙을 배웠다.

“한국교회에서의 경험은 북한에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는 통일 후 재가 북한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남한 목회자나 성도들과 협력하는 데도 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하교회에서 사역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신앙을 지킨 그

의 경험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김혜수 도성교회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연 전도사의 강한 신앙과 백이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된다”며 “말투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른 사역자와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몇 배의 노력이 더 들었지만 탈북 사역자들도 것처럼 꾸준히 경험을 쌓는다면 한국교회에서 적합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서울 서초구 성민교회(한홍신 목사)에서 통일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김광호 전도사도 어려움을 딛고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만 배웠던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남한의 조직문화 속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도들도 그를 가르치는 사역자가 아니라 도와야 할 대상으로 봤다.

“처음 부임했을 땐 성도들이 ‘전도사님, 저희가 잘 섬겨드릴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선을 넘어서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했죠. 참고 기다리는 것, 내 의견만 주장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마음을 하나로 맞춰



가며 서로 사랑하는 것도 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누구보다 든든한 저의 응원군이 됐습니다.”

한홍신 성민교회 목사는 그가 부임하자마자 먼저 교회학교 부서를 담당하게 했고, 남한 사역자와 한 사무실을 쓰며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거기에 김 전도사의 헌신이 더해져 성민교회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 ‘교회 안에 찾아온 남북통일’을 이뤘다.

김 전도사는 연말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도록 하브 역할을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꿈이다. “탈북 신대원 후배들이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담대함을 조금만 더 보여준다면 남북이 하나되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는 인류 최대 위기

“하나님 창조 세계 회복 위해 노력해야”

기후 위기가 오늘날 인류가 맞닥뜨린 최대의 위기이고, 그 위기는 인간의 행위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위기가 기독교신학포럼은 24일 오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재홍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기독교 과제-기후위기의 과학적, 사회적 현실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사대 기독교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포럼은 서울신학대 박영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의정책연구소 김병권 소장과 부경대 환경해양대학 김백민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화여대 송진순 박사과 연세대 이성호 박사의 논찬 순으로 진행됐다.

박 교수는 기후 위기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회복하는 사역에 기독교인이 적극 동참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 시대 키워드인 기후 위기가 인간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을 과학적, 사회적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주실 때 세상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라고 주신 만큼 지구를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적으로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미래의 일이므로 인간은 그동안의 행동을 회개하며 누워 있는 걸 넘어서 고쳐야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서는 기후위기의 사회적, 과학적 현실과 그 심각성, 대안은 무엇인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 소장은 ‘진보의 상상력,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정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학계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회의론을 타파하고, 왜 기후가 인류의 최대 위기가 됐는지, 기후위기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소개했다.

김 소장은 “기후변화 관련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화석연료 활용, 탄소배출 증가, 인간 활동

때문이며, 현재 추세로 볼 때 10년 정도 앞당겨져 지구 온난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 목표로 지구 온도 추가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매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정책적 대안으로 ‘탈탄소경제사회’를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가 아니라 ‘위기’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는 13.8도에서 약 15도로 1.2도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이산화탄소도 290ppm에서 410ppm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구 온난화가 ‘사기극’이라는 회의



론은 있을만하면 등장하지만 사실이 아니고 IPCC 6차 보고서를 한 줄 요약하자면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의 범인’이라는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줄이고 에너지 혁명을 이뤄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을 정리하며 박 교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우리가 이끌어 가는 지구가 멀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며 “욕심을 비우고 ‘생태적 케노시스’ 즉 ‘자기비움’을 생각하며 지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길 소망한다”고 했다.

그림자 헌신 사모 140여명 제주에

예장백석총회 전국교회 사모세미나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년 동안은 영적으로 퇴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목회자 사모로서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이번을 가졌던 시간은 한마디로 ‘회복’이었다. 다른 목회지에서 사역하는 사모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에너지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한걸음 더 나아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 사모들은 녹록지 않은 위치에 서 있다. 평생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 남편을 내조하는 것은 물론 가정의 경제 활동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어디까지 힘들다는 얘기를 꺼내놓기도 어렵다. 암묵적으로 짐목을 강요받는다. 사모라는 위치는 그만큼 힘들다. 규모가 작은 교회의 목회자 사모라면 더욱 그렇다.

저마다 사연과 고충이 많은 사모들이 제주도에 모였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대만에 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교육국이 마련한 ‘전국교회 사모세미나’에 총 140여명의 사모가 참석했

다. 이 자리는 목회자 남편 못지않게 힘든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사모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사하자는 취지로 준비됐다. 낮에는 관광지를 둘러보고 저녁에는 한자리에 둘러앉아 저마다의 사연을 나눴다.

사모들의 사연은 절절했다. 새하늘동산교회 김영숙 사모는 오랜 기간 목회 내조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고, 최근엔 갑상선 수술까지 받았다. 김 사모는 “사실 몸이 좋지 않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태라 세미나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찾고자 하는 답이 있어서 과감하게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헤안교회 문현주 사모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영적 퇴보에 대한 우려와 사모 역할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모들을 만나 동질감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다.

사연 나눔 뒤에는 특강이 이어졌다. 강사로 온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는 사모들이 ‘아버가 일’과 같은 마음으로 목회 내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



사는 “아버가일은 다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 덕분에 집안이 망하는 것을 막았다”며 “사모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버가일 같기를 바란다. 아버가일처럼 살리고 세우는 사모가 되자”고 전했다.

세미나 말미에 사모들은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목회 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고 했다. 대전우리들교회 최정인 사모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잘 보이지 않았던 좁은 눈으로 살아왔다면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이 준 사명을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넓게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목회 현장에 다시 가면 더욱 열린 마음으로 살갑게 성도들을 대하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초심을 갖고 목회 사역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종진 목사 7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사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금)	미국(USA)뉴욕 SeokWang Church 예배회복을위한 NYSKC Family Conference 위상성회 주최 NYSKC World Mission (HQ 뉴욕) 총재 피종진 목사 (서울)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뉴욕) 실무회장 이병환 목사 (워싱턴 DC) 사무총장 (213) 249-2467 (LA) 부친 열림교회 (광명사 목사) 010-8387-8088 부친시 송내동 376번지 천안 위대한 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임미영 목사) 010-6352-0691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With 부흥협의회 (대표총재 장사무엘 목사)
6(수) 저녁	충남 아산 은혜기도원 (원장 이은혜 목사) 010-8365-2456 주최 뉴글로벌 부흥사회 (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제14회 장로교회의날 행사 (대표회장 현영훈 목사) 장소 서울 한영대학교 (총장 현영훈 목사) (02) 2669-2200
7(목) 오후	김포 강림교회 (조경숙 목사) 010-8222-1992 한국교회 예배회복운동본부 제주 컨퍼런스 장소 제주 오슬로 호텔 Lecture Hall
14(목)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10-3790-2462 주최 한국 기독교 부흥사 단체 총연합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중앙대표회장 오병일 목사 준비위원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구미 덕천제일교회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강남금식기도원 (원장 김성광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흥천 봉곡리 기도원 (원장 남기수 목사) 010-8680-2999 주최 (사) 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총재 이종민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010-9068-9197 한기부 지도자회 (대표회장 장대영 목사 사무총장 김수을 목사 장소 인천 기쁨의 교회 (이종성 목사) 인천 부평구 일산로 81
25(월)~27(수) 29(금) 2시	천안 성화산기도원 (노베드로 목사) 010-8234-0690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6181-9182 주최 한미부흥사연합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규범 목사 (한국) 010-2238-3999 이성우 목사 (미국)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선교의 창 (196)

송중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교적 한류(韓流, Korean Wave) 문화

“인류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 죄 성을 지닌 인간은 더 많은 소유와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싸움해 왔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지상군이 들어가 기 전에 먼저 공군이나 해군이 선공한다. 즉, 미사일, 드론, 폭격기와 함포 사격을 통해 견고한 진을 부순다. 이렇게 상대 진영을 쫓대발으므로 만들어 놓을 때 보병의 희생은 최소화하게 되며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다. 승리를 위한 방정식은 세상 전쟁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현대 선교에 있어서는 입체적 사역 전략이 요구된다. 함포 사격이나 미사일처럼 밖에서 가 공할 힘으로 적진을 휘 집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바로 문화선교이다. 오늘날 영화, 드라마, 가요, 춤, 게임, 스포츠 등이 사이버 세계(假想 空間: Cyberspace)를 통해 파괴력을 드러낸다.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문화(Culture) 선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에 한인교회는 복음이란 콘텐츠(Contents)를 현대인의 구미에 맞게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변혁하는 시대를 앞지르지는 못할망정 뒤쳐 지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1. 백범(白凡) 김구 선생의 염원

1940년 3월부터 1947년 3월 3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냈던 김구 선생은 문화강국을 염원했다. 그가 쓴 백범일지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 나아가 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2. 한류 문화의 유래와 발생 요인

한류(韓流 Korean Wave)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유행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다. 한류라는 용어는 1990년대 후반에 한국의 아이돌 댄스 그룹과 한국 드라마가 중화권에서 청소년층에게 인기를 끌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초기 한류는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드라마를 통해 발현되었으며 이후

인가? 이는 지정학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있다. 한반도는 대륙의 동양 문화와 대양의 서양 문화를 모두 접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소위 동서 문화를 모두 융합시켜 한반도라는 토지 위에서 제3의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또한 폐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반도는 위로는 대륙에 아래로는 대양에 막혀 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지난 역사 가운데 양쪽으로부터 1,000년에 걸쳐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아 왔다. 그 속에서 한민족은 숱한 고난을 겪으며 고유한 민족성이 형성되었다. 이 아픈 한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 한은 감성을 발전시켰다. 결국 이 감성이 DNA로 후세에 전달되었고 이제 보이는 문화로 표출된 것이다.

3. 대표적인 한류 문화

첫째 K-Pop이다. 방탄소년단(BTS)은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7인조 보이 그룹이다. 현재까지 이 그룹은 전 세계에서 3,000만장 가량의 음반을 판매하였다. 국내외에서 받은 어워드(Award)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이 그룹은 세계가는 곳마다 구름떼처럼 청년들을 몰고 다닌다. 이제는 그 영향력이 가요계를 초월하고 있

다. 2003년 9월에 나온 대장금(大長今)은 우리 의학의 뿌리와 전통 음식, 음악, 의상, 예절 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2019년 5월 30일에 개봉한 “기생충(Parasite)”은 제92회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각본상의 4개의 상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2억 5,755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Squid Game)”은 2021년 9월 17일, 넷플릭스 통해 나왔고 모든 나라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 셋째 스포츠이다. 태권도, 양궁,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과 축구의 손흥민 선수, 박항서 감독 등은 하나의 문화 상품이 되었다. 넷째 전자 상품이다. 스마트폰, TV, 냉장고, 자동차, 반도체가 한류로서 세계 백화점을 점령해가고 있다. 다섯째 국악, 한복, 김치, 불고기, 화장품, 성형수술까지 이렇게 한류는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4. 한류 문화와 선교적 접촉

현대 선교의 가장 큰 난제는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설정이다. 만남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일방적 만남이 발전되면 인격적 만남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영

이다. 나아가 전 세계 한인교회는 영성대체와 문화의 영역을 선교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이 분야는 어둠의 세력이 주로 장악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가요, 드라마, 영화, 게임 등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바탕이 된 탁월한 작품들을 만들어 승부해야 한다. 그것은 복음을 현대인의 구미에 맞게 포장하는 것이다. 때로는 의미를 담은 간접표현이 직접표현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선교의식이 투철한 실력 있는 일꾼이다.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 은사가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키워 보내야 한다.

맺음말

일찍이 김구 선생께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앞으로 더욱 문화 강국이 되어야 한다. 이 문화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화해를 조성하고 어떤 담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민족은 고유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이며 자산이다. 그 무형문화가 21세기 들어서 한류라는 유형 문화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선교도 한류라는 대중성의 파도를 타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제 한인교회는 문화 사역에 눈을 뜰 때가 되었다. 오직 타 문화권 나라만을 선교지로 생각하는 단선적인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문화 영역은 오대양육대주 못지않게 중요한 선교지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며 선각자적 시각으로 복음을 담은 한류, 복음의 통로로 쓰이는 한류, 복음과 함께 가는 한류로서 입체적으로 사역해 가야 한다.

jsong007@hanmail.net

견고한 진을 부수기 위해서는 입체적 공격이 필요하다.
문화선교는 지상군이 할 수 없는 가공할 힘을 지니고 있다.
한류 문화가 세계에 뻗어 나가듯 선교적 한류도 이제 지지개를 켜야 한다.

K-POP으로 분야가 확장되었다. 한류의 유행과 폭발적인 영향력 증가는 유튜브가 만들어진 2000년대 이후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한류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를 넘어 서구 세계와 이슬람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주된 원인은 무엇

다. 2012년 7월 15일에는 음반으로 세계를 코믹하게 뒤집어 놓은 PSY(박재상)의 “강남스타일(Gangnam Style)”은 현재 유튜브 조회 수가 40억을 넘어섰다. 둘째 드라마와 영화이다. 2002년 초 KBS2 TV에서 방영된 “겨울연가”는 한민족을 넘어 일본에 온사마(배우준) 열풍을

적 만남으로 승화될 수 있다. 따라서 1단계 접촉점의 계기로 한류는 선교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류가 주는 최고의 선교적 기회이자 도구이다. 이로써 선교사들이 문화 사역자들과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사역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31 헤롯 가문을 소개합니다(3) - 헤롯의 아들들

헤롯 대왕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고통 중에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던 아들들을 사형시키고 자신의 후계에 대한 세 번째 유언장을 남깁니다. 헤롯 대왕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으로 아내 10명을 두었고 후계자 선정도 복잡했습니다. 요세푸스가 전하는 헤롯 대왕 10명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정리합니다.

헤롯 대왕의 첫 아내 도리스는 이두메인인데 안티파터(Antipater)를 낳았습니다. 안티파터는 헤롯 말년에 고모와 아버지 헤롯을 해치려고 로마 황실과 접촉한 것이 발각되어 헤롯 대왕이 최후에 사형시켰습니다. 다음은 마리암네(Mariamne) 1세인데 대제사장 시몬의 딸로서 빌립(Herod Philip)과 헤로디아스(Herodias)를 낳았습니다. 빌립은 이복형제 아리스토틀로스의 딸 헤로디아스와 결혼했으나 이복형제 안티파스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 대왕이 가장 사랑했던 마리암네 2세입

니다. 그녀는 하스몬 왕족 출신인데 헤롯 대왕과 사이에서 알렉산더, 아리스토틀로스, 키프로스 등을 낳았습니다. 미리암네 2세(1세와 다른 미리암네)가 헤롯을 무시했고, 헤롯은 왕족인 하스몬 가문을 두

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마리암네,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틀로스를 죽입니다. 미리암네 둘째 아들인 아리스토틀로스는 고모 살로메의 딸 베르니케(Bernice)와 결혼하여 헤롯 아그립바 1세등 다섯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

하는 헤롯 왕입니다. 네 번째가 사마리아 출신 말다케(Malthace)입니다. 아켈라오(Herod Archelaus)와 헤롯 안디바(Herod Antipas)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헤롯 사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전처를 버리고 조카이자 이복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고 세례요한의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인입니다. 헤롯과 빌립을 낳았습니다. 이 빌립이 이두래와 드

라고닛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헤롯의 아내들이 다섯 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파사엘을 낳은 팔라스, 록사나(Roxana)를 낳았던 페트라, 살로메를 낳았던 엘피스(Elpiis), 그리고 사촌 여동생, 조카 등등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로 약 2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0명의 아내 중에 하스몬 왕가 출신 미리암 2세를 가장 사랑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헤롯 대왕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과 그녀의 두 아들들(알렉산더, 아리스토틀로스)을 처형합니다. 권력을 탐닉했던 독재자의 불행이 드러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마자 아들들이 서로 왕이라는 주장을 하고 유대 사회도 로마 황실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의 분봉 왕(Client King)으로 명합니다. 베들레헴이 아켈라오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켈라오를 피하여 나사렛으로 갑니다(마 2:22). 아켈라오 왕은 아버지처럼 잔인하고 불의했습니다. 그의 약행에 분노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아켈라오의 약행을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상소합니다. 이에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왕에서 면직시키고 추방시킨 후 이 지역을 로마 총독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파송된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다음은 헤롯 안디바(Herod Antipas)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과 아우구스투스의 동맹인 질로 로마에서 성장합니다. 그가 통치한 갈릴리 지역이 예

동생의 빌립의 아내(이복형 아리스토틀로스 딸) 헤로디아에게 반합니다. 안디바는 헤로디아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결혼합니다. 이 일로 그는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고, 딸을 버린 안디바에 분노한 아레다 왕의 침략을 받습니다. 셋째 헤롯 빌립 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클레오파트라 아들로 이두래와 두라고닛 지방 분봉 왕입니다. 헤롯 빌립(눅 3:1)을 빌립 2세라고 부릅니다. 헤로디아 남편 헤롯 빌립1세와 다른 사람입니다. 빌립2세가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축했습니다. 수도 파네이온을 고치고 확장하여 황제에게 헌정하며 빌립이 건축한 황제의 도시라는 뜻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 칭했습니다. 헤롯 빌립은 유대인이 없는 지역 분봉 왕으로 같듯이나 사건이 없었습니다. 빌립의 백성 중심의 통치는 유명합니다. 그는 외출할 때 재판석을 들고 나가 길에서 백성들 상소를 들으면 즉석 재판으로 백성들 마음을 샀습니다. 또 감세 정책도 유명합니다. 아켈라오는 매년 600달란트를 징수했고, 안디바는 매년 200달란트를 징수했는데, 빌립은 100달란트를 징수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빌립을 헤롯 가문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 했습니다. 약한 왕 헤롯이 낳은 20명의 자손의 약행이 1세기 초대교회와 선교 현장에 얽혀 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헤롯 대왕이 죽자마자 아들들이 서로 왕이라 주장 유대 사회도 로마 황실도 갈팡질팡

도 갈팡질팡합니다. 놀란 로마 황실은 헤롯 대왕의 영토를 그의 세 아들이 분할 통치케 합니다. 그들은 헤롯 아רכ엘라오(Herod Archelaus), 헤롯 안디바(Herod Antipas), 그리고 헤롯 빌립(Herod Philip)입니다. 헤롯 대왕은 최종적으로 아켈라오에게 권력을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를

수님과 세례 요한의 활동무대였고 그의 재임 기간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활동 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복음서에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나바테아 아레다(Aretas) 왕(고후 11:32)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복동생 빌립 부부와 함께 유숙했습니다. 그때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절기, 은혜 기억 (민 28:1~2) 찬 455장

민수기 28-29장은 이스라엘 절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절기는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속에 표시해 두셨는데 그것이 '절기'입니다. 그 날짜가 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며 온 세

대가 은혜 속에 살길 원하십니다. 본문은 '상번제(매일 드리는 번제)' 및 '상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특별한 날짜에 맞는 절기'뿐 아니라, 매일이 은혜가 부여되는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매일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로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화 다 죽었고 (민 31:1~12) 찬 268장

모세는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뽑아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의 왕들과 모든 남자를 다 죽였고, 주술사 발람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이유는 '바알브를 사건의 죄악을 선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 데려오므로 모세는 화가났습니다. 죄의 여지는 한치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전쟁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의 살았던 사람이라도 '라합'처럼 항복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항복하는 자들은 살리는 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항복한 자들은 죄에 대하여 결별을 선언해야 하며 그 '완전한 결별'의 상징이 '진멸'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여지를 남겨 두지 맙시다. 철저하게 죄와 결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생명을 누립니다.

수 은혜받은 자의 책임 (민 32:16~19) 찬 352장

요단 동편 땅은 목축에 적합한 곳입니다. 르우벤, 갓 자손은 요단 동편의 땅을 원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 그 두 지파가 치러야 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오해합니다. 르우벤, 갓 자손들은 '우리 가족과 가족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난 후에 우리가 앞서 선봉에서 싸우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올 것이며, 요단 서쪽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알립니다.

은혜받은 자들은 감사하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르우벤, 갓 자손은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았지만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온 지파의 선봉에서 서서 가나안 전쟁을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얻은 땅은 분배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는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그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목 성도들의 기업 (민 35:6~8) 찬 288장

민수기 33-34장은 정복할 땅의 경계와 땅을 분배할 책임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의 기업을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도피성이 포함된 48개 성읍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

도가 받은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도피성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의도적인 죄를 훨씬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며, '실수로 죄를 범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오늘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다해 달려갑시다.

금 도피성을 주신 은혜 (민 35:9~12) 찬 585장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숨을 수 있는 성입니다. 고의로 살인하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지만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은 성읍에서 장로들에게 죄를 고해야 합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낳ალი고 고하면 받아들여집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인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도피성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 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도적인 죄를 훨씬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며, '실수로 죄를 범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오늘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다해 달려갑시다.

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민 36:1~13) 찬 94장

민수기의 마지막 장으로 27장에 나오는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배풀어 주신 호의에 대한 규례를 보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물을 배부셔서 딸들도 유산을 상속받도록 하십니다. 만일 상속받은 여성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여인이 받은 땅은 어느 지파의 기업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유산을 상속받은 여인들은 반드시 그 여인이 속한 지파 남성과 결혼하라 하였고, 말씀

에 순종하여 딸들은 모두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합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과 각 지파를 강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생명'과 '성도'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음악 이야기(15)



윤임상 교수
(월드시민대학교대학원)

엘우드 헤인즈 스톱스 목사와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6년 4월 18일 자 LA Times 기사 헤드라인에 "Weird Babel of Tongues, 괴기한 방언의 바벨탑 쌓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이후 기독교 개신교의 큰 영적 대사건이 된 아주사 부흥 운동(Azusa Street Revival)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찬송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Fill Me Now)"입니다. 이 찬송 시를 썼던 미국의 감리교 엘우드 헤인즈 스톱스(Elwood H. Stokes 1815-1897) 목사는 1879년 어느 날 캠프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통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사도바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스톱스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집회가 끝나자 "Fill Me Now"라는 제목으로 영감의 찬송 시를 기도 형태로 써 내려갔습니다. "성령이여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나를 채워 주소서 지금 나에게 채워 주소서" 그는 이 찬송 시를 써 내려가며 "성령께서 나를 떨리게 하고 내 이마를 적시게 하였다"라고 회고하였습니다. 캠프집회에서 스톱스 목사와 같이 동역한 찬양인도자였던 존 리치몬드 스웨니(John R. Sweney, 1837-1899) 음악 감독은 이 이야기를 들은 중에 그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가사에 멜로디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음악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던 음악인으로서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여 노래하게 만드는 큰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이 찬송이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지역의 캠프집회 때마다 불리며 성령의 임재를 깊이 사모하며 체험하는 찬양으로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윌리엄 시모어 (William Joseph Seymour 1870-1922) 목사로 그는 루이지애나에서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신분의 문제로 광시와 천대를 받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며 자랐고 더군다나 어린 시절 심한 천연두를 앓아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그는 어렵게 목회자의 수업을 받아 침례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찬송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Fill Me Now)"입니다. 이 찬송 시를 썼던 미국의 감리교 엘우드 헤인즈 스톱스(Elwood H. Stokes 1815-1897) 목사는 1879년 어느 날 캠프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통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사도바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스톱스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집회가 끝나자 "Fill Me Now"라는 제목으로 영감의 찬송 시를 기도 형태로 써 내려갔습니다. "성령이여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나를 채워 주소서 지금 나에게 채워 주소서" 그는 이 찬송 시를 써 내려가며 "성령께서 나를 떨리게 하고 내 이마를 적시게 하였다"라고 회고하였습니다. 캠프집회에서 스톱스 목사와 같이 동역한 찬양인도자였던 존 리치몬드 스웨니(John R. Sweney, 1837-1899) 음악 감독은 이 이야기를 들은 중에 그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가사에 멜로디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음악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던 음악인으로서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여 노래하게 만드는 큰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이 찬송이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지역의 캠프집회 때마다 불리며 성령의 임재를 깊이 사모하며 체험하는 찬양으로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체험의 큰 계기가 된 것은 감리교 목사 찰스 파렘 (Charles F. Parham 1873-1929)의 영향이었습니다. 1905년 휴스턴에서 파렘 목사는 성령세례와 방언에 대한 강의를 있었는데 이때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 시모어 목사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지 못하고 복도에서 창문 너머로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차별 속에서도 시모어 목사는 큰 영향을 받았고 신유, 방언 등 체험을 강조하는 은사에 초점을 두고 오순절 성령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체가 되어 한 세기 만에 5억 명 이상의 가장 빠르게 성장한 오순절교단의 씨를 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초기 기독교 교인들, 3차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에 모였던 군중들, 그리고 아주사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시모어 목사를 위시한 당시 교인들의 모습에서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행 1:5)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보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점검하며 찬양의 본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극히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 신앙의 고백적 찬양을 만들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찬양이 주가 되기보다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칭송하고 사모하고 높이는 균형 있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본질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사와 그것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지는 행위가 반듯이 따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혹은 일상에서의 찬양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야 합니다. 아울러 이것을 통해 스톱스 목사의 고백에 담긴 성령의 임재를 매 순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일상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사랑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믿고 그것으로 인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운동은 신학적, 교리적인 면에서 약한 토대 위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기에 복음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모어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 성령부흥 운동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기독교 교인들의 성령 임재 사건과 흡사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 당시 크리스천들은 유대교인들로부터 엄청난 차별을 받았기에 회당이나 성전에서 집회를 갖지 못하고 마가의 비좁은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모어 목사와 군중들에게도 이와 같았습니다. 당시 LA Times 기사에는 흑인과 백인이 한데 섞여 예배하는 사실을 비난하는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모는 이때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대로 된 건물조차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LA 다운타운의 다 무너져 가는 창고 건물 하나를 간신히 찾았는데 그 건물을 건축업자들이 건축자재를 두고 건초 등을 보관하는 마구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찬송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Fill Me Now)"입니다. 이 찬송 시를 썼던 미국의 감리교 엘우드 헤인즈 스톱스(Elwood H. Stokes 1815-1897) 목사는 1879년 어느 날 캠프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통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사도바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스톱스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집회가 끝나자 "Fill Me Now"라는 제목으로 영감의 찬송 시를 기도 형태로 써 내려갔습니다. "성령이여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나를 채워 주소서 지금 나에게 채워 주소서" 그는 이 찬송 시를 써 내려가며 "성령께서 나를 떨리게 하고 내 이마를 적시게 하였다"라고 회고하였습니다. 캠프집회에서 스톱스 목사와 같이 동역한 찬양인도자였던 존 리치몬드 스웨니(John R. Sweney, 1837-1899) 음악 감독은 이 이야기를 들은 중에 그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가사에 멜로디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음악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던 음악인으로서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여 노래하게 만드는 큰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이 찬송이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지역의 캠프집회 때마다 불리며 성령의 임재를 깊이 사모하며 체험하는 찬양으로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너희는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행 1:5)"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임재를 기다리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20세기 초 교회사에 나타난 이 거대한 아주사 성령 부흥 운동도 결국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다가 나타난 위대한 성령 부흥 운동

우리의 찬송 중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찬송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Fill Me Now)"입니다. 이 찬송 시를 썼던 미국의 감리교 엘우드 헤인즈 스톱스(Elwood H. Stokes 1815-1897) 목사는 1879년 어느 날 캠프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통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사도바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스톱스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집회가 끝나자 "Fill Me Now"라는 제목으로 영감의 찬송 시를 기도 형태로 써 내려갔습니다. "성령이여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나를 채워 주소서 지금 나에게 채워 주소서" 그는 이 찬송 시를 써 내려가며 "성령께서 나를 떨리게 하고 내 이마를 적시게 하였다"라고 회고하였습니다. 캠프집회에서 스톱스 목사와 같이 동역한 찬양인도자였던 존 리치몬드 스웨니(John R. Sweney, 1837-1899) 음악 감독은 이 이야기를 들은 중에 그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가사에 멜로디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음악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던 음악인으로서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여 노래하게 만드는 큰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이 찬송이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지역의 캠프집회 때마다 불리며 성령의 임재를 깊이 사모하며 체험하는 찬양으로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iyoon@wmu.edu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여부(영어부 동일)
- 1등상: \$500
- 2등상: \$300
- 3등상: \$150
- 장려상: 0명 - 15명
- 회원소성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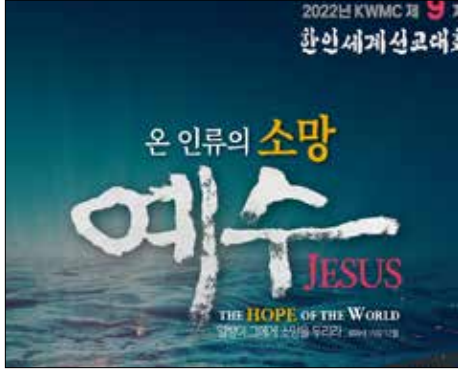
-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미정(추후 발표)
-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 NIV, KJV(or NKJV) 중 택일
-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의사** 주관 : 하늘가족
광고후원 :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이사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 뉴저지평화기도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연하수 (대표: 김 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한인세계선교대회 “예수, 온 인류의 소망”

되돌아본 한인세계선교대회의 역사, 앞으로 기대되는 선교적 비전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Korean World Mission Council of Christ)가 주최하는 2022년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예수, 온 인류의 소망(Jesus, the Hope of the World)(롬15:12)이란 주제로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9회 대회를 앞두고, 지난 KWMC의 역사와 2022년 제9차 본 대회의 특징과 기대되는 점들에 대하여 되짚어 보았다.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의 역사는 미국 이민 1세대들이 정착하며 미국에 한인 교회당이 많지 않던 시절에 있었던 미주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킹덤 드림을 꿈꾸며 모이게 된 것으로 시작된다. 세상 적인 성공을 뜻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먼 미국 땅으로 넘어온 1세대들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신 꿈인 "킹덤 드림"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더 크신 세상을 향한 소망을 알고자 했다.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1988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제1차 세계한인선교대회'였다. 당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1988년 7월 25일에 시카고워튼대학빌리그레함센터에서 첫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당시 해외로 파송되었던 한인 선교사들 5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내어 그중 128명의 선교사가 대회에 참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첫 대회 후, 선교대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참석 선교사들,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뜻을 모아 그 후 매 4년마다 대회를 계속하여 이어가게 되었다. 한인세계선교대회는 미주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온 세계에 퍼진 디아스포라 한인 선교사들을 묶어주는 네트워크 역할을 감당했으며 한국교회 중심의 초교파적 선교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했던 대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했던 대회 주강사들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만나기 어려웠던 강사들을 초청하여 세계선교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였다. 이전 대회에 참석하였던 척 스미스, 대천덕 신부, 조동진, 루이스 부시, 빌 브라이트, 김준근, 토마스 왕, 사무엘 모팻, 로렌 커닝햄, 방지일, 말프 윈터, 라인하르트 본케, 존파이퍼, 폴 에셀맨, 마이클 음, 최찬영 등 한인 목회자 리더들과 미국인 목회자 리더들이 초청되어 선교의 큰 비전을 선포하고, 나눔으로서 세계선교의 원동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한인세계선교대회는 4년에 한번 열리는 선교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온 세계에 퍼져 있던 선교사들이 미국에 모여서 함께 그동안의 선교 현황을 보고하고, 선교적 도전과 함께 선교의 다양한 방법들을 나눔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계획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 대회 초창기 당시에는 비자 문제로 미국에 입국조차 힘들었던 선교사들이었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의 초청 편지로 비자를 받고 많은 세계에 퍼져있던 한인 선교사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대회에 참석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참석하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늘어서 이제는 1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선교의 대형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대회의 성장으로 인하여 대회 때마다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가 배출 되게 되었다. 이민 1세대들의 참여와 선교동원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쉽게도 2세들의 선교동원에는 아직 미약함이 큰 것이 사실이다. 1세대들이 선교지로 많이 나아가게 되었던 자랑스러운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제9차 대회에서는 더욱 더 젊은 다음 세대들 특히 MK 세대들이라 불리는 세대들이 앞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보다 확장 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본대회의 큰 목표라 할 수 있다. 미주의 한어권 20대, 30대들과 영어권 젊은 세대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세계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큰 씨너지 효과를 발생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이전 대회에서는 지역별로 모여 각 지역의 선교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선교의 전문 분야별 트랙들을 중심으로 하여 총 8개의 전문분야별로 모이게 된다는 점도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대회 이전부터 시작하여 대회 이후 까지 계속되는 전문분야별 네트워크가 세계선교에 새로운 틀을 만들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대회 개최지에서도 본 대회에서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대학캠퍼스(시카고 워튼대학교, 캘리포니아 아주사피사픽대학교)들에서 주로 개최되었지만 팬데믹 이후로는 이제 학교 측으로부터 대회 개최를 거절 받게 되었고, 이번 대회는 캠퍼스가 아닌 미주 워싱턴의 로컬 교회인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에서 개최 되게 된 점이다. 지역적으로는 개최지가 중부에서 서부로 그리고 동부로 대회가 넘어오게 된 점도 특이점이다.

이번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세계선교의 진영들이 더욱 견고해지며 효과적으로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재상 기자)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56. 성격차보다 온전한 주님과 관계

전통적으로 부모 자식관계, 형제 관계, 부부관계는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관계로, 삼친(三親)이라 불렀습니다. 이 삼친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없으면 부모자식도, 형제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인류지기(人倫之始) 만복之源(萬福之源)이라 하며,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뜻입니다.

원만한 부부관계에서 의좋은 형제관계와 배려하는 부모자식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부부관계가 중요한 것은 부부는 가깝고도 먼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부부가 사이가 좋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는 이 세상에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게 되면 남남처럼 멀리 느껴지는 사이도 없다는 말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빼적거리며 안 좋은 관계에 처한 것을 '금슬부조지탄(琴瑟不調之歎)'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에 '금슬 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서 한숨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심각한 가정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혼에 대한 통계가 시시각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혼은 결혼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생기는 가정파괴, 부부파괴, 자녀 파괴는 심각합니다. '시집 가면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금과옥조였고, '한번 결혼하면 짐은 머리가 파 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진리로 여겨졌던 것이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였는데, 이제는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 1위를 넘보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당한 이혼과 부끄럼 없는 재혼 풍조 등이 큰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혼인제도에 대한 생각도 혁명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은 가정과 가족의 심각한 파괴 현상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떤 불화가 있어도 화해하고 인고하며,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려던 과거의 모습은 더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서로 이해하는 모습 대신 서로의 반목과

질시가 더욱 심화되어, 순간적인 판단과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족의 틀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이혼율 증가의 사회학적 배경에 대하여,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장이었던 고(故) 이태영 박사는 (1) 이혼 관의 변화-옛날에는 일부중사의 윤리관으로 이혼이 금기시되었으나, 이제는 이혼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이 달라지면서 이혼 금지, 불하에서 허용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여성의 지위 향상-남편과의 굴종 관계에서 대등한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되고, 경제적 지위와 능력의 향상으로 이혼에 대한 긍정적, 적극적 자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취업증대, 경제적 독립과

주님의 온전한 관계 정립이 가정문제 해결의 최종 완결판

함께 남편 이외의 남성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여러 가지 이혼 사유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것은 '성격차이' (47.2%, 2014년 기준)였습니다.

성격차이 다음으로, 경제문제가 12.7%(2014년 기준)를 차지했고, 이 외에 배우자 부정과 가족 사이 불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혼하면서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를 '성격차이' 때문이라고 할까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말은 성격 차이가 가장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가나 처가와와 갈등, 종교적 갈등, 성격인 불만, 대화단절 등과 같은 이유를 뭉뚱그려서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격차이의 변화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좌우됩니다. 마음은 성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성격도 달라지고, 성격이 변하면 인격도 달라지고, 인격이 변하면 인간의 생활방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성격차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지배하고, 통치하느냐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한 독일 화가가 전도에 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1850년 초, 미국의 한 복음 기관에서 그 그림을 활용해서 전도지를 100만부 이상 발간했습니다. 배위량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전도지를 가져다가 주인공의 얼굴을 상투 튼 한국 사람의 얼굴로 바꾸고 <박군의 마음>이라는 전도지로 만들어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7가지의 사람의 마음을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즉 (1) 죄인의 마음 (2)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 (3) 회개한 마음 (4) 그리스도인의 마음 (5)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 (6) 유혹과 시련에 쓰러지는 마음 (7) 타락한 마음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일곱 가지 짐승이 들어 있는데, 일곱 가지 짐승은 일곱 가지 죄를 말합니다. 즉 뱀 같은 거짓, 표범 같은 험기, 염소 같은 음란, 돼지 같은 탐욕, 거북이 같은 게으름, 공작새 같은 교만, 개구리 같은 험담이 그것입니다.

<박군의 마음>의 전도지에 의하

면, 인간의 마음을 크게 죄인의 마음(멸망-)지옥)과 의인의 마음(구원-)천국)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내가(남편 또는 아내) 내 마음의 주인인 경우와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인 경우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 경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경우와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일 때 내 마음속의 7가지 죄악의 문제들을 몰아낼 수도 없고, 지배, 통치할 수도 없어서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바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고전3:16)을 인정한다면, 남편과 아내 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연합하여 온전한 관계가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내재, 임재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 통치하지만 하면, 7가지 죄악들을 몰아내고, 성격 차이,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심령 천국과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격 차보다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정립이 최우선이고, 가정 문제 해결의 최종 완결판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에쉬타블라지역에 소재한 에쉬타블라 한인교회(초교파)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실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1.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으로 목회 경험이 있는자
2. 미국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3.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소개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포함)
3. 최종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각 1부(사본)
4.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분
5. 추천인(목회자 only) 2명이상

제출처

이메일: sddkim206@gmail.com
 문의 및 연락처: (440)319-4596 | (440)822-9390
 우편메일: 2300 Austingburg Rd., Ashtabula, OH 44004

기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마감: 2022년 8월30일

에쉬타블라 한인교회
 2300 Austingburg Rd., Ashtabula, OH 44004
 koreanashtabula@gmail.com

인/터/뷰

“KPOP” 한인 최초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디렉터 **에이든 켈트 렘지 & 김수진 부부**

뮤지컬을 통해 복음 전하기 위해... 뮤지컬 ‘The Way’ 를 기획 중, 함께 크리스찬 뮤지컬 극장과 공연을 꿈꾸다!

‘KPOP’ 한인 최초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 디렉터 에이든 켈트 렘지 & 김수진 부부가 오는 10월 프리뷰와 11월에 정기공연 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뮤지컬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뮤지컬 ‘The Way’를 기획중에 있다. 본지에서는 이들을 만나 크리츠찬 뮤지컬과 공연에 관해 들어 보았다.

▲뮤지컬을 전공하고 시작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에이든)는 텍사스 출신 이고, 수진(아내)은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뉴욕에 왔지만, 우리 모두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나며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했죠. 그러면서 찬양과 성극을 접하고, 공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대학에서도 음악을 전공하였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때 브로드웨이 공연 을 접하게 되면서 큰 감명을 받아, 뮤지컬을 전공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대학원(NYU Tisch)에 입학하여 뮤지컬 작곡을 전공하게 됐고, 학교에서 같은 전공 을 하던 수진(아내)을 만나 결혼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오프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을 기획하고, 작곡가, 엔지니어, 디렉터로 작업해 왔습니다. 아내 수진도 뮤지컬 음악 디렉터로서 많은 작업을 해왔고, 현재 KPOP 뮤지컬 공연인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을 마치고 브로드웨이로 올라와 10월 중 프리뷰, 11월 중에 정기공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뮤지컬 작곡을 하는 크리스찬 뮤지션으로서 비전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지만 이 음악적 재능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둘 다 뮤지컬 작곡을 공부하고 일해 왔고, 브로드웨이의 화려함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에게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벽찬 감동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어느 날엔가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Sight & Sound의 "Jesus" 뮤지컬을 관람한 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과 주님의 생애에 대하여 작곡하고 기획할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노래를 작곡하고, 가사를 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뮤지컬의 방향과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공연이 어디서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뮤지컬은 50명 이상이 참여해서 공연해야 할 텐데 무대도 커야 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과연 이 공연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결코 네 주머니 형편에 맞는 연인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을 마치고 브로드웨이로 올라와 10월 중 프리뷰, 11월 중에 정기공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일이 결코 금방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주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도 그 시간을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God's timing is perfect"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다른 곳에서 불러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한 명은 한국에서 이곳 뉴욕까지 오게 되었고, 다른 한 명은 텍사스에서 뉴욕으로 불러 주셨으며, 때가 되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이루신 일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주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타이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왜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해서 주시지 않는가에 대하여 고민도 많았지만, 이제는 더 인내하며 그 시간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저는 주님께서 저의 음악적 재능을 빼앗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확신하게 하신 것은 비록 저에게서 재능을 이제 빼앗아 가신다 할지라도,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나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뮤지컬 극장을 세우고,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먼저 모든 작곡을 마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곡을 이

미 시작했고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완성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현재 "The Way"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작곡 중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며 믿음 안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합니다. 감독과 배우들, 무대 디자이너,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자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맞는 사람들을 주님께 허락해 주시는 데로 발견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불러 주시리라 믿고, 기대하며 그 시간을 더욱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로지 주님뿐이심을 믿으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작의 첫 걸음을 밟을 뿐 그 일을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명성, 자랑은 전혀 없어야 할 것이며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뮤지컬의 "파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잘 쓰일 수 있을까요?

뮤지컬 공연은 믿지 않는 이들을 부르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을 초대하지만, 교회로 그들을 초청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 공연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와



에이든 김수진 부부

서 보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더라도 마음을 열고 편한 마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고,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열어붙은 심령을 깨우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뜨겁게 사로잡아 주님의 품으로 그들을 불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작업 중인 "The Way"에서의 내용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던 제자들, 우리와 다른 바 없었던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보여주면서, 변화되는 모습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됨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가까운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뮤지컬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면?

뮤지컬 업계는 세상의 유희이 너무나 많은 분야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자체로 무시당하게

나 좋은 성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힘든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힘든 시간을 너무나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성수에 힘쓰고, 교회 섬김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더 드러내고, 내 재능을 뽐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원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내 재능을 뽐내고, 드러내고, 칭찬 받고, 관심받을 수 있기에 그것이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내기 힘쓰는 크리스찬 뮤지션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깐 손해 보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큰 기쁨과 행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이든과 수진 부부는 인터뷰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부탁했다. "항상 성령충만한 가정, 성령충만한 공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전에 맞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시길"

자세한 것은 www.adenkenramsey.com에서 볼 수 있으며 sujinkimramsey@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상 기자)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22년 가을학기 신, 편입생 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